주체 90 6.27~7.3(매주 수요일 발행)

6.15 주간



창 간 호

차 례

창간사

≪3.1 월간≫의 정신을 계승한다 3

축하문

≪6.15 주간≫ 창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3

노 작 · 명 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5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제 9

6.15 공동선언

한민전 중앙위 6월 호소문 11
한민전 중앙위 상무위원회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12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담화 13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14
통일여명 7호 광고 16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19
합동회의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 보고 19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 21

실천투쟁

현 시국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22
통일연대와 민화협이 공동대회 23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 학생 추진위원회 건설 24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청년, 학생 25
통일토론회 (남측) 결의문 25
6.15 공동선언이행과 청년학생들의 과제 26

민족대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 보 도 문 27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가성과리에 진행된 것과 관련해 28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협의회 29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통일 여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 31

단 죄 · 규 탄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반이회장) 33
김영삼이 극악한 반통일적인 망언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35
반통일세력에 대한 1인시위 총화 36

국가보안법 철폐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 1인시위 37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38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목표 40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42
사회각계에서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43

뉴 스 44

≪3.1 월간≫의 정신을 계승한다

주체 25(1936)년 12월 1일에 ≪3.1 월간≫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3.1 월간≫은 항일무장투쟁이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전국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확대발전하기 위해 조국광복회를 창건하던 격동적인 시기에 그 기관지로서 창간되었다. ≪3.1 월간≫은 조국광복회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기관지로서의 사명도 띠고 있었으며 온 나라, 온 민족을 상대로 하는 대중정치잡지로서의 사명도 동시에 담당수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세기와 더불어≫ 제 7권에서 제호 ≪3.1 월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3.1 월간≫이라는 제호는 민족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거기에는 우리가 조선혁명의 주체노선을 고수하고 백두산을 타고앉아 전조선적인 판도에로 무장투쟁을 확대발전시킨다는 전략적 의도와 함께 온 민족의 총동원으로 전민항쟁을 마련해간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경애하는 주석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오늘에 계승하여 우리 신문의 제호를 ≪6.15 주간≫으로 명명하였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천명된 지 한 돌이 지났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6.15공동선언으로 인하여 전민족적인 대통일전선이 형성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21 세기 통일헌장이 마련되었다.

6.15공동선언이 가리키는 통일대통로를 따라 7천만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힘찬 전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낮은 단계 연방제실현을 이룩하고 나아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높은 단계 연방제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확고히 전망하게 되었다.

민족자주선언, 민족단합선언, 통일지향선언인 6.15공동선언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통일전선으로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48년연석회의, 곧 하층통일전선에 비하여 정부간의 상층통일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여 우리에게는 민족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하층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나선다. 이것이 바로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설정하고 거족적인 군중운동으로 민족통일전선의 강화발전을 촉진하게 된 근본취지인 것이다. ≪6.15 주간≫의 창간취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한돌을 맞이하여 민족통일전선을 촉진하기 위한 출판물인 것이다. 《3.1 월간>의 기본정신을 오늘에 계승하여 현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인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 창간된 출판물이 바로 ≪6.15 주간≫인 것이다. 민족통일전선촉진운동은 ≪6.15 주간≫이 비록 조국광복회와 같은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관지는 아니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스스로 짊어진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6.15 주간≫는 발간취지에 맞게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것을 근본목적으로 삼고 철저히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리고 ≪6.15 주간≫는 ≪3.1 월간≫의 기본정신만이 아니라 그 편집상의 모범을 따라배워 그 체계와 형식, 제작방법의 모든 면에서 독창성과 대중성, 효율성을 구현할 것이다.

한편 이미 주간 인터넷 ≪구국의 소리≫와 월간 자료집 ≪통일여명≫이 발간되고 있는 조건을 반영하여 특색있게 활용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이룩하도록 할 것이다.

≪6.15 주간≫는 무엇보다도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전위조직의 노선과 정책을 우리 운동대오에 정확하고 광범위하게 선전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다.

우리 청년투사들은 예리하고 전투적인 또 하나의 출판보도물을 틀어쥔 만큼 더욱 청춘의 슬기와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6.15공동선언실현이라는 역사적 위업에 헌신분투할 것이다.

≪3.1 월간≫의 정신을 계승한 ≪6.15 주간≫는 6.15 공동선언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주체 90(2001)년 6월 20일
≪6.15 주간≫ 편집부

축하문

≪6.15 주간≫ 창간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한 돌을 맞이하며 ≪6.15 주간≫이 창간된 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지난 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으로 감격적인 남북최고위급의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 마련되고 조국통일의 대통로가 활짝 열리게 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재삼 절감하면서 그이의 향도따라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 자주와 화해, 단합의 한길로 총매진하여 왔으며 그 길에서 분단반세기 동안 도달하지 못했던 놀라운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내외 분열세력의 반통일방해책동과 우리 민족민주세력의 주체역량의 한계로 인하여 6.15공동선언실현투쟁은 응당한 높이에서 속도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6.15공동선언실현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통일애국신문 ≪6.15 주간≫이 창간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6.15 주간≫이 자신의 창간이념에 맞게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선전활동, 민족통일전선운동을 촉진하는 조직운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PDF자료집이라는 새형의 출판보도물이 가지는 참신성과 입체성, 속보성이 충분히 발휘될 것을 확신합니다.

민족민주세력의 또 하나의 전투적이고 예리한 무기로서 ≪6.15 주간≫은 항일시기 ≪3.1 월간≫이 그러하였듯이 전체 운동세력을 6.15공동선언실현으로 추동하느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6.15 주간≫편집집단동지들의 혁신과 건승을 바라며 다시한번 ≪6.15 주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서울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김정일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낸 서한
주체87(1998)년 4월 18일

6.15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5일 금강산에서는 남북 해외 정당사회단체 대표 670여명이 모인 가운데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948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에 의해 소집하신 남북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이래 53년만의 참으로 감격적인 대회였습니다. 이에,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감격과 의의를 새기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노작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를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는 얼마전에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발표 5돐을 뜻 깊게 기념한데 이어 이제 곧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 5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주체37(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력사적인 민족적회합이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렬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였을 때 남북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습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 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력사적인 첫 승리였습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마련하시고 지도하신 남북련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련석회의 50돐을 맞는 오늘 그 경험과 업적은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민족문제를 새롭게 밝히시고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건설,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의 전 력사적로정에 훌륭히 구현하시여 민족대단결의 숭고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 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처음으로 민족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단결의 기초를 과학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입니다.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 가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것만큼 민족성원들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결합되여 있으며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 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 운명을 바로 개척해 나갈수 없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성을 가지며 계급,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성과 민족의 공통된 리해관계는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을 광범히 묶어 세우는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주체사상을 민족문제에 구현하여 내놓으신 철저한 민족자주의 사상,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며 가장 폭 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입니다.

민족의 단결문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과 우리 나라 력사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의 당파싸움과 사대매국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망국의 비운을 겪었으며 그 후에도 파벌과 사대주의로 인하여 민족주의운동도 초기공산주의운동도 실패를 면할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높이 발양시키

며 민족수난의 치욕스러운 력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 준 탁월한 사상입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넓은 도량과 포옹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압박 받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이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기본흐름을 반영하여 민족문제와 함께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밝혀 준 독창적인 사상이며 세계인민들에게 반제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옳바른 지침과 투쟁의 기치를 마련하여 준 위대한 사상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문제와 민족의 단결문제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힌 주체의 민족리론과 전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신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의 하나이며 온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의 자주위업에 기여하신 특출한 공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을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묶어 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량심적인 종교인과 자본가들까지 광범한 애국력량을 망라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이였으며 이 조직은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반일애국력량을 총 동원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전통이 마련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온 민족이 단결하여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 건설에 이바지할데 대한 구호를 내놓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에 한결같이 떨쳐 나서도록 하시였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시였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 대원칙을 제시하시여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시였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 발표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은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천적경험의 총화이며 불멸의 민족대단결총서입니다.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는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리념적기초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 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적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년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튼튼한 밑천입니다. 수령님께서 남기신 민족단합의 위대한 사상과 업적, 풍부한 경험과 전통을 고수하고 드팀 없이 계승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며 우리 대에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전 민족대단결 10 대강령을 높이 받들고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팎의 정세로 보나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시대의 추세로 보나 지금이야말로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통일된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때입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분렬이 지속될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더해 지고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이 격화되면 민족적참화를 빚어 낼수도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외부세력들은 북과 남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우리 나라가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 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수 없으며 또다시 외세의 롱락물로 되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굴러 떨어 질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외면할수 없습니다. 조국통일문제를 외면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는것은 분렬을 고착시키고 영구화하려는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 놓인 온갖 난관과 장애를 물리치고 하루속히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여야 하며 또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조선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두개 민족이 대치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 받고 같은 말을 하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입니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통된 민족적심리와 감정으로 뗄수 없이 련결되여 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는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입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가장 악랄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선의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렸으며 마침내는 일제를 격멸시키고 잃었던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일제가 패망한 후에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 들어 와 주인행세를 하면서 민족의 자주권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영영 갈라 놓으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 왔지만 남조선인민들속에 민족의 넋은 의연히 살아 있습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외세의 지배와 남조선통치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여 끊임 없이 용감하게 투쟁하는것은 압제와 치욕에 항거하는 남녘형제들의 민족적의분의 발현이며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기질을 보여 주는것입니다.

민족의 통일기운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전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수도 없고 막을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이 있습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습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 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것입니다. 전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력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로선과 분렬로선을 가르는 시금석입니다.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자주요, 북과 남의 화해요, 단합이요 하는것은 빈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이 량립될수 없는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량립될수 없는것입니다. 진정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외세의존의 길로 나갈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적단결은 어디까지나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단결이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떠나서 민족의 단결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니다.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전 민족대단결을 이룩할 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결정적력량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여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의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사상감정입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 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고유한 민족적기질은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튼튼한 사상정신적기초로 됩니다. 더우기 민족분렬의 온갖 불행과 고통을 겪을대로 다 겪어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민족적요구로 나서고 있으며 조국통일의 기치는 민족공동의 투쟁의 기치, 전 민족대단결의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의 대업을 위하여 온 민족이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반세기이상이나 갈라 져 살아 온 북과 남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큽니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도 서로 다르지만 오늘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민족적과업은 조국통일이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

이에 관계 없이 계급,계층의 리해관계를 뛰여 넘어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와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종교인, 군인 할것 없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에 적극 기여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 없이 민족의 넋을 귀중히 여기고 간직하는 모든 사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것은 우리의 확고한 립장이며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가 펴나가는 광폭정치는 만사람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주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이며 민족의 모든 계급, 계층을 나라와 민족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굳게 묶어 세우는 가장 폭 넓은 애국애족의 정치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 없이 광폭정치를 실시하여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이든 그와 단결하며 조국통일의 한대오에서 손 잡고 나갈것입니다. 한때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들어 설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는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은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리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손을 잡은 사람들과는 조국통일의 길에서뿐 아니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도 힘을 합쳐 나갈것이며 조국통일에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족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할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오늘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것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력대 남조선당국자들은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는 반북대결정책으로 북과 남의 화합을 가로 막고 각방으로 민족의 대단결을 저해하였습니다. 남조선당국의 반북대결정책은 북과 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단결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면 북과 남사이에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수 없을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와 ≪공조≫하면서 동족을 적대시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한다면 인민들의 저주와 규탄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입니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자들의 비참한 말로가 이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선행통치자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그들의 말로에서 교훈을 찾고 반북대결의 낡은 과거와 결별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하여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이며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애국애족의 립장에서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법률과 기구를 철폐하고 온갖 정치적장벽을 없애야 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남조선의 력대 통치자들을 반대한것은 그들이 집권자라고 해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한것은 남조선 력대 통치자들의 외세의존정책과 반통일정책, 매국배족행위입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정으로 애국애족의 립장, 련북단합의 립장에 선다면 그들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 막는 기본장애입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 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다른 민족을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의 상투적수법입니다.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 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 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통치배들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 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외세의 부추김과 조종밑에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은 분단의 장벽을 쌓고 북과 남사이의 정치, 군사적대결을 격화시켰으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고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을 분렬, 와해시키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북과 남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안중에 없이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위하여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렬책동을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은 분렬주의자들의 교활한 리간, 와해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그에 단결의 힘으로 맞서 나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층 인사들과 인민들은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지상의 요구로 내세우고 단결을 강화하며 통일애국의 대오를 끊임 없이 확대하고 조직적으로 튼튼히 결속해 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런대련합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대화와 련대련합을 널리 실현하는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내부에 비록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래왕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련대련합을 강화해 나가면 서로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뜻과 힘을 합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숭고한 리념을 안고 래왕과 접촉, 대화와 조직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그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렬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마당을 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대화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것을 조국통일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북남대화는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폭 넓은 대화로, 전 민족적인 대화로 되여야 합니다. 대화에는 북과 남의 당국자들을 포함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민들, 해외동포들이 광범히 참가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쌍무적, 다무적인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련대련합하여 공동행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루어 지고 공고화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보조를 같이하면서 공동행동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은 오늘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 놓여 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하여 락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이고 우리 조국도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반드시 대단결을 이룩할것입니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에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제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입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 수 없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 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 위업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 공통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 수 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 단결의 사상적 기초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 특질이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주장한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열은 매국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하여 조국을 통일하자 !



남북공동선언

주체 90(2001)년 6월 15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었다.

북남수뇌들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과 남측의 연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하였다.
5. 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한민전 중앙위 6월 호소문

6월이 왔다. 온 겨레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1년된다. 꿈에도 소원인 조국통일을 외치던 가슴들을 열어제끼고 복받치는 격정과 희열로 삼천리강토를 진감시킨 6월의 환호성은 오늘도 귓전에 들려온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6월의 그 날은 우리 민중이 통일의 태양이시며 민족의 영수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은총을 받아안은 대행운의 날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애국애족의 숭고한 이념과 대용단으로 분단 50여년의 긴긴 세월에도 이룩할 수 없었던 역사적 과제를 2박 3일에 해결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어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김정일**장군 만세! 의 환호를 목청껏 외친 각계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숭배심은 6월의 폭염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사상으로 일관된 6.15남북공동선언은 그 진리성과 현실성, 합리성으로 하여 날을 따라 더욱더 내외에 폭풍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는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기로 한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해 온 겨레는 줄기찬 투쟁을 벌이며 분단사에 있어보지 못한 승리와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포애적 사랑과 도량으로 남에서 평양으로 올라가고 북에서 서울로 내려오며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 내왕과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는 속에 고조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는 내외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할 결연한 의지를 힘있게 과시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자.

조국통일열기로 들끓던 우리 민중과 겨레는 외세와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은 신냉전의 기류를 몰아오며 6.15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차단하고 이북을 겨냥한 전쟁도발책동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소동에 미쳐 날뛰며 남북관계를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과의 공조가 아니라 외세와 야합하여 이북을 압살하려는 사대세력의 책동앞에서 우리 민중은 외세에 공조하는 자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활화산처럼 터뜨리고 있다. 우리는 6.15공동선언이행이 미국에 의해 차단되고 외세의존자들에 의해 중단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우리 겨레는 뜻깊은 역사의 6월을 맞아 더욱 달아오르는 조국통일의지를 모아 외치고 또 외치고 있다.

통일만이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다. 통일없이는 살 수 없는 7천만 겨레이기에 우리는 기필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실현의 길로만 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도 멈춰 설 시간도 없으며 오직 21세기의 첫해인 올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에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제껴야 할 길만이 있을 뿐이다.

새 세기와 민족사는 우리 민중에게 중대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우리 민중이 미국과 분열주의세력의 6.15공동선언이행 차단책동을 짓부수지 못하고 반북대결의 광풍속에 움츠러든다면 언제까지나 외세의 식민지노예로 치욕만을 당하며 끝내는 멸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외세를 배격하고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길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다. 전 국민은 6.15공동선언실현에 한 사람같이 떨쳐 일어서자.

조국통일은 거족적 투쟁이며 전 국민이 분기할 때 분단의 빗장은 벗겨진다. 전국 각지에서 6.15공동선언실현 투쟁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하자.

오늘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척도이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며 대결과 긴장격화에로 되돌려 세우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책동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자.

외세와의 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자.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실현하자.

6.15남북공동선언의 이정표를 따라 나가는 길에 민족자주도 있고 민족대단결도 있으며 조국통일도 있다.

50여년간 분단의 비애속에 고통과 불행만을 강요당해온 이 땅의 민중들이여!

전국 도처에서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반미자주화, 민족대단결의 횃불을 더욱 높이 치켜들자.

미국의 침략과 간섭을 종식시키는 것은 조국통일의 선차적 과제이다.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그 무엇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50여년간의 분단민족사가 가르쳐 주고있는 피의 교훈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희생물로 존재하는 식민지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다.

전 국민이 반미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통일의지를 활화산처럼 분출시키자.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결사 반대배격하자.

주한미군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침략군이며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고 한반도의 전쟁온상이다. 이 땅에서 미군만행과 전쟁연습소동을 저지시키고 미군사기지들을 철폐시키자.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 양민학살진상규명, 미사일방어체제반대, 주한미군철수 구호를 높이 들고 반미항전에 총궐기하자.

미국에 추종하는 친미굴종외교 타파하고 민족자주정치 이룩하자.

사대외세의존자들을 척결하자.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이여!

조국통일은 전 민족이 함께 가는 길이고 7천만이 하나될 때 분단의 장벽은 무너진다. 전 국민이 자기운명 민족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합쳐 싸울 때는 바로 지금이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떠밀어 나가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연방제통일국가수립에 총매진하자.

단결은 힘이고 통일의 담보이며 민족발전의 무기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의 대강을 따라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온 민족이 단결하자.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거주지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뭉치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가, 종교인 등 각계각층 민중은 소속과 처지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연대하자.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가 민족통일과 통일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특색있게 기여하자.

21세기 조국통일의 역사적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에게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며 우리 민족은 통일된 강산에서 만복을 구가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영도따라 6.15남북공동선언관철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민중의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모두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에 총궐기하여 21세기를 조국통일의 세기로 빛나게 장식하자.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6월 1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가 6 월 1 일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중앙위원들 도, 시 위원회들과 각급 조직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기념행사조직에 관하여 의제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통일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역사적 시기에 이남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온 3 천리 강토가 감격과 통일열기로 들끓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천리혜안의 예지, 넓은 포옹력과 아량으로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지난 50여년 동안에도 이룩할 수 없었던 조국통일을 위한 역사적 과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하시어 민족분열을 끝장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과 새 세기 민족번영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시었다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지적하면서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통일역사의 위대한 개척자이시며 창조자이시라고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계속해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지난 1년간 화해와 단합, 대단결을 이룩하는 길에서 이룩한 사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면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새 세기의 진군을 시작한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으로 숨쉬고 장군님의 영도력으로 전진하며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의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것이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려진 철석의 신념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과제들을 제시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따라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조국통일로 향한 7 천만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은 필승불패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민족자주통일의 전환적 해로 빛나게 장식하려는 전 민중의 한결같은 의지와 결의를 담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1.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맞으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

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 중앙위원회가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각층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감사편지를 삼가 올릴 것이다.

2.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촉진운동을 벌일 것이다.

3. 통일촉진운동기간에 한민전 중앙위원회와 각급 조직들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기념보고회, 충성의 결의모임, 강연회, 인터넷모임, 사진 및 미술전시회, 문예작품 창작경연 등 자체실정에 걸맞는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진행하고 출판, 보도물들은 특집을 조직하여 민족자주통일운동에서 일대 고조를 이룩해 나가며 21세기 첫 광복절을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4. 각지에 있는 한민전 대표부에서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전례없이 높아가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이남민중의 숭배열기와 조국통일열기를 소개하는 녹화물 청취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 90 (2001)년 6 월 1 일

서울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담화

오늘 우리는 7천만 온 겨레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새 세기의 첫해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 돌을 맞이한다.

감회도 뜨거운 지난해 6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단사상 처음으로 뜻깊은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6.15 공동선언을 채택발표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었다.

20 세기에 시작된 민족분단의 비극이 21 세기로 이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특기할 사변이다.

7천만 겨레는 자주와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 데 관한 6.15공동선언을 받아안게 됨으로써 새 세기의 조국통일 이정표를 가지게 되었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채택발표된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의 역사로 전환시켜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며 자주통일 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엄숙한 민족선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겨레는 수난에 찬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21세기에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김일성민족으로 빛낼 것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되었으며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 밑에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침략자들의 이북에 대한 고립압살정책이 노골화되고 반통일분자들의 영구분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던 지난해,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담아 탄생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특출한 정치실력과 걸출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하기에 우리 남녘민중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마워 《김정일장군만세!>를 목메어 부르며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활화산처럼 터치었다.

6.15공동선언은 7천만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정당한 조국통일이정표인 것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내외에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날을 따라 높아가는 국제적 지지와 찬동속에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삼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

정녕 조국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바쳐 오시는 위대한 장군님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족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열어주신 통일역사의 창조자이시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태양이시다.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설 때, 우리 민족은 21 세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 것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이행속에 온 겨레의 자주통일기운은 급격히 높아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조국통일 진군운동을 힘차게 전개해나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족자주와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받들어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의 애국민중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감으로써 새 세기의 첫해인 올해를 민족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다.

주체 90 (2001)년 6 월 12 일
서울

[평양방송 - 한민전 평양대표부 기자회견]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한돌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13일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기자회견석상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출판보도부문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 우리나라주재 여러나라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온 겨레가 분단사상 처음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과 환희로 들끓었던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한돌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이남의 한민전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 7천만 민족에게 통일의 밝은 빛을 안겨주고 민의를 격동시키는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거듭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장군님을 끝없이 우러러 숭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어오는 오늘 여러분들과의 회견에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러 따르는 숭배열기와 통일열기로 가득찬 이남의 민심동향에 대하여 통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민족과 인류를 격동시켰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남민중의 시각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남민중은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역사적 사변이었고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불면불휴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은 민족의 화합과 단합을 실현하고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고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하나로 잇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마땅히 그 본연에 맞게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데로 지향되어야하고 온 민족의 화합과 단결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일찍이 민족자주의 통일대강을 펼쳐주시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하여 하실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오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87 (1998)년 4월 18일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50돌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도 이남의 집권상층이나 여당과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도 민족공동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란다면 그들과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북의 이처럼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년세월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감돌고 민족대결과 분열의 비극이 지속된 이유는 미국의 대한반도 침략정책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남을 강권지배하고 있는 현실조건에서 남과 북이 마주앉아 민족의 지향에 맞게 통일의 방도를 모색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면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횡을 막아야 하였습니다.

이점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지구가 깨어진다고 하여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담력과 철의 의지로 미국의 전횡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한반도정세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본조건들을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지난해 6월에는 마침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북의 승리, 이것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루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신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냉전과 대결이 지속되던 한반도에 화해와 단합의 장을 펼친 역사적 화폭이었으며 나라의 통일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해나갈 의지를 내외에 선포한 엄숙한 선언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이 이남 각계민중의 의지와 지향으로 전환되었고 조국통일위업이 자주의 기치따라 전진하고 장군님의 두리에 이남의 전체민중이 굳게 뭉쳐가는 것이 오늘 이남에 조성된 새로운 정세국면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은 자주시대의 진두에 거연히 서시어 격변하는 세계를 자주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인도하시는 21세기의 태양이시며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기개와 존엄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십니다. 하기에 오늘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심으로, 민족운명의 수호자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러 따르는 위인숭배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TV화면으로 장군님을 뵙고 환희의 감격을 터쳤던 이남의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오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앞을 다투어 지면에 밝고 정중히 모시는 새로운 위인숭배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이남의 거의 모든 출판물들에서 앞을 다투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시는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림, 전시회에서도 점차 보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올해초까지 이남의 출판물들과 전시장들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현상이 우리가 초보적으로 파악한데 의하더라도 10만회에 달했습니다. 지난 2월말 서울에서 노컷이라는 미술전이 열렸는데 여기에 출품된 장홍근화백이 제출한 《아 - 한반도>가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셔서 사람들의 특별한 관심과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작품은 사진과 그림을 합성한 것으로서 음양 양쪽에 이북의 공화국기와 이남깃발을 대칭되게 개양된 것을 형상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밝게 비치는 양지쪽에는 펄럭이는 공화국기를 배치했고 공화국기안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숭엄한 감정이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남깃발은 그늘진 음지쪽에 공화국기보다 낮게 배치했고 그 깃발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만 모시고 공화국기를 햇빛밝은쪽에 배치한 것은 우리 민족의 걸출한 영웅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밖에 없으며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솟을 것이며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세기로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이남의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남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 세상의 모든 명문장, 명단어를 다 찾아내어 칭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존칭사는 무려 일백수십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이남의 인터넷홈페이지 열린마당에 올린 《세계최초 **김정일**장군님존칭모임>이라는 글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21세기태양>, 《위인중의 위인>, 《백전백승 불패의 명장> 등 무려 125가지 존칭으로 칭송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남에서는 선군혁명영도로 제국주의를 쥐락펴락하시며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고 이북식 사회주의의 위상을 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력에 대한 칭송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이남 민중은 **김정일**총비서의 고비와 위기를 도리어 역전의 기회로 삼아 화를 복을 전환시키는 정치감각과 통찰력, 과감한 결단력과 신축자재하고 능활한 협상력에 의해 미국의 거만한 콧대가 꺾어졌다면서 통일실현에로 7천만민족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과업은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같이 탁월한 통일전략가, 강인한 통일의지를 지니시고 7천만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조직동원하는 위대한 정치지도자, 절세의 위인의 영도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칭송하면서 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이남의 주간잡지 주간한국은 《**김정일**외교술의 비밀>이라는 기사에서 **김정일**위원장은 최근 남북관계는 물론 전반적인 대외관계를 자신의 의사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일**위원장이 최근에 관여한 일련의 활동을 보면 탁월한 전략가임을 시사하는 대목이 여러곳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남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남을 움직이는 가

장 영향력있는 인물, 통일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로 선정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 민중은 선군혁명영도로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이북식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만방에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방식에 탄복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선로동당 창건 55 돌행사에 참석했던 이남의 정당, 단체대표들은 북에 가서 《우리를 건드리는 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리가 없다>는 구호가 제일 실감났다고 하면서 무적필승의 선군정치로 겨레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해주신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영도에 감탄을 금치못해 하였습니다. 연합뉴스 정이종차장은 자기 글에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한 민족을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김정일**총비서의 영도력은 충분히 검증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전문가들을 비롯하여 이남에서는 장군님의 자주외교로 북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강대국들이 모두 찾아와 평양은 국제수반외교의 장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력에 대하여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남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는 장군님의 사상과 노선을 연구체득하는 새로운 단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남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김정일**국방위원장바로알기운동>과 대학원들에 북한과가 신설되고 주체사상토론회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그 한 실례로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지난 4 월 23 일과 24 일 이남의 각계층이 참석한 가운데 주체사상토론회가 공개적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북한과들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영도>, 《주체사상연구> 등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이론과목들이 취급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는 공개적인 학습교재로 되고 있습니다. 이남의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지난해 12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인터넷자료집 《통일여명> 창간호와 2 호, 3 호들에 위대한 수령님의 노작 《우리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 《**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 데 대하여>, 《조국통일 3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자>를 비롯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주석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노작전문들을 실었으며 수십제목의 노작제목들을 학습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실로 이남에서 일고있는 위인숭배열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되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력에 공감하고 탐복한 이남민중들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중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두리에 뭉쳐 사상도 굳히고 풍모도 같이하려는 열정의 발현입니다.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이론과 영도력, 위인적 풍모에 매혹된 이남의 각계민중의 위인숭배열기는 또 새로운 통일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노선과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끼리 통일할 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노선에 이남민중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호응해나서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이남민중의 인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 오늘 절대다수 민중이 미군의 이남강점을 종식시키고 남북대결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후 통일문제연구단체들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 가 미군의 조속한 철수를 요구했고 미국인을 이남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외국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해 언론들에서는 《미군은 이땅에서 물러가라>는 표제의 특집을 게재하는 등 반미의식화에 초점을 맞추고있고 각계층 민중들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반미투쟁단체들을 조직한 데 이어 하나의 통일적인 반미운동연합단체 조직에로 나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에 대한 이남민중들의 절대적인 지지는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반대배격하여 나서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4 월 17 일 한총련,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8 개 단체의 주최하에 이남의 각계민중은 서울에서 미사일방어체계구축저지와 한반도평화실현범국민대회를 열고 북침을 목표로 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구축책동을 반대배격하였습니다. 같은 날 이남의 종교인대표 103인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침략적 본질을 폭로하고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난시기 적지않은 이남 민중이 미국을 보호자로 생각하면서 통일후에도 미국이 주둔해야 한다고 대답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의식전환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남에서 통일운동이 명실공히 경애하는 장군님의 민족자주통일사상과 노선에 따라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또한 통일운동이 이북민중들과 연대연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에서 이북민중들과의 연대연합은 지난 1 월 10 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 년대회>에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고 북녘 친구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남에서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비롯한 8 개 사회단체들로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이북과 다채로운 통일행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6 월 15 일에는 남북의 각계인사 600 여명의 참석하에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대통일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가지자는 이북의 제의에 호응하여 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속에 지난 5 월, 이북의 노동자들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5.1 절통일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길에서 노동자계급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남의 남북교육문화교류 연구소는 조선기자들과 서울과 평양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소재하의 사진전을 가지기로 합의하고 그 준비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할 수 없었던 이러한 제반사실들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이 가져온 자랑찬 결실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21 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이남민중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영원히 청춘으로 지내시옵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옹호고수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이남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와 조국통일열기에 의해 미국과 수구세력들, 분열주의세력들이 위축되었었던 그들의 침략적 반통일적 책동은 더욱 교활하게 더욱 악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핵문제, 미사일문제에 이어 재래식무기문제까지 고안해가지고 강경대응, 동해에 무력배치를 진행하며 통일의 길에 방해를 조성하고 있고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은 공조와 안보를 떠들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저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모처럼 마련된 화해와 단합의 국면을 냉전과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흉악한 범죄적 책동입니다. 그러나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군님께서 가리키시는 통일의 진로를 따라 전진하는 한민전과 이남민중의 앞길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민전은 각계 민중과 더불어 21 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 나감으로써 기어이 통일의 새 날을 앞당기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내외기자여러분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정의의 필봉으로 한민전과 이남민중들의 투쟁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의 정을 담은 녹화물 《태양의 열풍>을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한돌에 즈음하여 한국민족민주전선 평양대표부 대표가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습니다.

통일여명 7호

통일여명 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통일여명 7호는 전국연합 '각종자료게시판'과 민주노동당 '기타자료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노작

재미교포 최덕신과 한 담화(주석님)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장군님)

◇ 문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호소문
한민전 중앙위 상무위 확대회의에 관한 공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성토함
한민전 중앙위 6월 호소문
민족의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한민전 중앙위편지)
한민전 부위원장 담화(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맞이하여)

◇ 구국의 소리

노동자, 학생 등이 5월정신계승대회를 진행
이회창의 건국대특강을 학생들이 저지
환경파괴의 주범 주한미군을 몰아내자
아직도 한총련은 이적단체인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배격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6.15공동선언을 깨자는 것인가
미사일방어체제수립책동을 반대하는 내외의 목소리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남측단체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노동자, 농민 힘을 합쳐 미국의 경제침탈책동 분쇄하자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민족사에 끼친 죄악
대북정책을 통해 본 부시정권의 호전적 정책
통일조국의 새 아침을 앞당기는 주체의 전파
주체의 전파 그 자랑찬 행로
한민전 대변인 담화(반이회창)
한민전 대변인 담화(6.10)
김영삼의 극악한 반통일적인 망언
일본당국의 침략전쟁을 위한 책동이 날로 노골화
경찰당국이 파업시위투쟁에 대해 파쇼적 탄압을 더욱 강화
9기 한총련출범에 부쳐
주한미군은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군국주의망령을 몰아오는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남과 북, 해외 3자의 연대를 강화하자
6월항쟁 그날의 정신으로 민주와 통일을 앞당기자
이회창과 그 하수인들의 반북책동과 관련해서
6월민중항쟁, 그날의 정신을 되살리자
6월항쟁, 그날의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6.15공동선언이행과 청년학생들의 과제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
미국은 왜 윈윈전략을 폐기하려 하는가
통일의 여명을 안아온 민족사적 쾌거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통일강성대국 세우자
온 겨레를 매혹시킨 통일의 태양
주한미군존재명분 없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 기자회견문

◇ 구국전선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 담보
조국통일과 세계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전진의 6년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상호주의〉는 허용될 수 없다.
주한 미군주둔비 증액요구
5.16쿠데타는 미국의 창안품
<박정희기념관>건립 취소돼야
노근리사건 해결되었나
가소로운 망언
수구언론 청산돼야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민생
한미호전세력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위대한 실력가
21세기는 주체사상의 세기
위인칭송열풍
주체성과 민족성의 구현은 통일의 근본담보
조국통일은 민족단결의 힘으로
민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변혁이론
보천보전투, 민족사적 의의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그 저의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북침전쟁도발책동
서울미문화원점거투쟁 오늘에 다시 본다
해외침략에로 내닫고 있는 일본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온 위대한 영도
6.15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오늘의 과제

◇ 통일여명

한국학생운동의 혁신과 단결을 위한 <통일여명>편집국 호소문
손준혁전한총련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 연속기획 - 김정일국방위원장 서울방문환영(4)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당, 단체 합동회의
민족통일대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 합의사항
북측 준비위에서 통일연대로 보내온 서신
북측 정당, 단체 합동회의 제안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통일연대 대규모 범국민대회 열어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제주지역 청년 준비위 결성식
광장선전전
6.10, 청년학생추진위 발족식
통일연세, 민족통일촉진기간사업에 대한 기자회견문
제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서강청년 동문학생 선언
교회협, 6.15기도운동 확정! 6.15선언실천촉구!
남북불교도 동시법회 진행
6.15남북공동선언실현 미주동포통일축전 진행
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전북 615인 선언운동
각 지역 통일연대 6.15기념행사 및 결성식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
민족통일대토론회 성사 서울지역보고 및 환영대회

◇ 정세분석
조선과 부시정권, 그 전망(김명철)

◇ 이론과 실천
6.15공동선언을 다시 읽는다(한호석)

◇ 단죄규탄
전민특위 공동백서(북측지역)
한국전쟁시 미군의 양민학살 사죄 촉구
부쉬행정부의 조미대화자세와 관련한 조선의 원칙적립장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강요를 규탄한다
6차 미국의 내정간섭, MD 반대 범국민선언운동 결과
15개단체, 주한미군 규탄행사
녹사평역일대, 미군에 의한 지하수 오염 심각
원주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맥팔랜드 재판거부!
춘천, 미군부대 반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가 3주째
부산, 미 하얄리아 부대와 관계당국에 보내는 경고문
소파전면개정하고 방위비분담 폐기하라
일본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일군국주의 음모규탄
평통사 평화군축 촉구 제 4차 국방부 앞 집회
송두율 교수 입국불허 규탄
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원사철 규탄성명
종로서장 규탄 1인시위
전교조, 이회창총재 규탄대회
이회창 총재 춘천방문 한나라당원 시위대 폭행 발생
조선일보, 이회창은 영해침범운운 반통일모략을 중단하라
반통일보수우익세력 척결과 김영삼사법처리에 관한 성명

◇ 통신연단
한총련 및 모든 운동단체들에게 주는 고언(강희남전범민련의장)
청년학생 앞장서서 주한미군 몰아내자(리인수미철본의장)
주한미군철수운동이 21세기 청년학생들의 희망 그리고 임무인 이유
백만학도 총력투쟁 한총련의장 투쟁호소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각계각층에 드리는 연대투쟁호소문
북한상선은 절대 '영해침범'을 한 것이 아닙니다.
6월총력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자!(민주노동자 전국회의)

◇ 화제초점
김정일장군님 당중앙사업시작 37돌에 즈음한 각국 기념행사
한민전평양대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와 통일여명 평가!
통일연대,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구성하기로 결정
남북 6백여명 금강산서 <민족통일대토론회> 개최
남북 농민 2천명 내달 단오절 공동행사
한총련출범식
귀국준비대표, 독일베를린 도착!
상도동 1인시위 (5월 21일~5월 24일)
대전충남 9일째 일인시위
주한미군 소송전담 법률가팀 발족
민족고대 주체사상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6.15 1주년기념 전국대학가 다채로운 행사

◇ 학습제일주의(통일여명 2호자료 재게재)
학습 1 - 혁명가에게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
학습 2 - 가속도적으로 학습하자
학습 3 - 전투적으로 학습하자
학습 4 - 주체의 진리를 터득했는가
청년학생대중을 자주의식화하자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동기학습체계를 잘 세울 데 대하여
철학의 빈곤은 사색의 빈곤을 가져오며 사색의 빈곤은 창조의 빈곤을 가져온다.
모두 다 <주체사상총서>를 학습하자
<주체사상총서> 1권을 학습하면서

◇ 학습노트
철학 - 주체사상과 종교 / 사상의식발전의 합법칙성
역사 - 6.25전쟁 전야 / 조국전선의 6.7호소문
정치경제학 - 미일간 종속적 동맹관계 / 생산수단과 가치법칙
전략전술론 - 전략과 전술 1, 2

◇ 시와 노래
불타는 남녘의 여름
이렇게 오시었습니다
50년 7월 16일
남산마루의 8월담시
뜨거운 강
인민공화국
나루터의 전설
수안보온천
고추장자랑
평양의 아침
모란봉기슭에서
무등산은 무덤산이 아니다
양키의 군화
나는 바람이 좋다
탑이 솟습니다
6월을 다시 생각한다
6월의 노래
<시모음> 6월의 메아리

◇ 정론과 수필
강성부흥하자
위인칭송의 노래가 많은 나라
민족의 자긍심
아름다운 나라
절세의 위인상, 존칭어로 본다
보천보전투 체험담
위인과 점퍼
생명의 은인
위인과 유머
통일과 민족공조
송이버섯에 대한 생각
현대판 놀부
고목에 꽃을 피워주신 분
평양상봉을 통해본 절세의 위인
금강산 민족대토론회를 다녀와서 - 첫 번째

◇ 신념과 양심
이의엽씨, 항소심 3차공판
비전향장기수 윤용기선생님 별세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 투쟁총화

◇ 기념일
6월 25일 - 미제의 전쟁도발
6월 26일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7월 3일 -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 건설
7월 4일 - 7.4남북공동성명 발표
7월 8일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서거
7월 16일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서울현지시찰

◇ 편집국에서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자

구국의소리 주체90년 3월 7일 - 9일

이 철 : 지난해 한반도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참으로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나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됐는데요. 그 변화의 하나가 바로 분단사상 처음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온 겨레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차질없이 무조건 성실히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 일 : 아시다시피 20 세기 중엽에 시작된 민족분열의 역사를 끝장내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와야 하는건 21 세기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미룰수도 지체할수도 없는 민족지상의 과제이고 사활적인 요구인데요. 때문에 새 세기를 맞이한 우리 민족은 남북공동선언을 기치로 삼고 그 이행과정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 위업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하는거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주지하다시피 남과 북의 정상들이 직접 서명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남북공동선언은 온 민족의 근본이익과 요구, 일치한 염원과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철 : 그렇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걸 중핵으로 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은 철두철미 7 천만 겨레의 요구와 지향, 염원에 부합되게 무조건 철저히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거죠,

오 일 : 네, 6.15공동선언은 남과 북의 어느 한쪽에서만 이행해도 안되는 거구요, 어느 한쪽이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내세우면서 선언이행에 소극적 입장과 자세를 취해서도 안되는 거죠. 또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눈앞에 당면한 요구와 이해관계만을 추구하거나 비본질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면서 선언이행에 **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올바른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고, 외세와 야합하지 말고, 동족끼리 힘을 합쳐 공동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야 하는거죠.

이 철 :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자면 당국자들이 외세와 공조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 입장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책임적인 역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남북공동선언은 당국이 합의하고 채택한만큼 당국이 무조건 책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면 각계민중이 단합된 힘으로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오 일 : 그래요. 각계민중은 민족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여 나가야 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역행하거나 제동을 거는 온갖 제도적인 장치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할거예요..

이와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내외 분열주의세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이행되는 과정에 한반도에서는 건설적인 변화들이 일어났구요,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일련의 진전이 이룩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계 진보적 인류는 남북공동선언이 이행되면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고, 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의 통일을 달가와 하지 않는 내외 분열주의세력은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면서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있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부터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은 남북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는데 불안을 느끼면서 어떡해서나 훼방을 놓으려고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른바 상호주의와 반공태세확립을 운운하고 있구요, 또 지나친 급격한 변화니 ***이니 하면서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훼방을 놓기에 급급하고 있는데요. 이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이룩되는걸 달가와 하지 않는 자들의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철 : 그런데 말예요. 남북공동선언의 성공적인 이행을 달가와 하지 않는 분열주의세력은 민족내부에만 있지 않잖아요

오 일 : 네, 그래요. 미국과 일본반동들은 겉으로는 지지하는 척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달가와 하지 않으면서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미국의 극우익세력과 군부호전계층은 주한미군 장기주둔과 대북고립압살책동을 계속 추구하면서 호전적인 폭언을 일삼고 있구요. 일본반동지배층은 해외팽창야망과 한반도에 대한 재침책동을 가속화하고 북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시하면서 자위대무력증강에 열을 올림으로써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위업실현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계민중은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는 내외분열주의세력을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거족적 투쟁을 통해서만 민족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철 :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말이죠, 공동선언 이행에 각당, 각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각계민중이 적극 참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 일 : 네, 그래요. 남북공동선언 이행 자체가 어느 특정정당, 단체나 계급계층의 요구와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을 위한거고, 또 전민족적인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거죠. 그런 만큼 6.15남북공동선언은 어느 특정정당이나 단체, 어느 한 계급계층의 참여만으로는 성공리에 이행될 수 없는거죠. 지금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토대해서 남과 북 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엔 당국이나 특정정당, 단체만이 아니라 각당, 각단체 대표들, 각계각층 인사들과 민중이 적극 참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남북공동선언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이익에 걸맞게 원만이 이행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철 : 그와 함께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 일 : 네, 옳은 말씀이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건 공동선언이행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를 가지죠.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그 당위성과 활력을 통해서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세계적 판도에서 폭발하고 있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굳은 연대를 표시하고 있는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적 힘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 없죠. 때문에 우리 민중은 보다 강력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야하는 겁니다.

이 철 : 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인류와 더불어 곡절 많은 20 세기를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과정에 이룩된 기적으로 장식하고 보다 휘황한 통일전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21세기에 들어섰는데요. 새 세기 첫해인 올해 우리 민족 앞에는 기어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감으로서 민족 최대의 숙원인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해야 할 중대하고도 영예로운 과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온 겨레는 지난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성과에 토대해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전환적 국면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6.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합동회의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동지 보고

우리는 이제 머지 않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와 전세계를 격동시킨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뜻 깊은 날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진해 온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당면대책을 토의하는 공화국 정당, 단체 합동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감회도 새로운 지난해 6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가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뜻 깊은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북남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천지를 진감시킨 그날의 대환호와 폭풍 같은 충격과 파문은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에 울려 오고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의 발표는 끊어 진 민족의 피줄을 다시 잇고 랭전과 대결의 찬바람이 불던 이 땅에 화해와 통일의 열풍을 안아 온 새 력사의 장엄한 뢰성이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새 시대의 엄숙한 민족선언이였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로 우리 민족은 수난에 찬 과거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21세기는 통일되고 강성부흥하는 위대한 조선민족의 세기로 될것임을 세계앞에 장엄히 선포하였으며 래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성업에 더욱 힘차게 떨쳐 나설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라의 통일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그에 모든것을 다바치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 세기를 맞는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선물을 안겨 주시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몸소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시여 2000년대 민족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였습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기간은 불과 이틀밤 사흘낮밖에 되지 않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짧은 력사의 순간에 나라가 분렬되여 55년간 이루지 못한 거창한 일을 단신으로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대에 북남수뇌상봉이 실현되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의 내용이 그대로 구현된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참으로 민족통일운동사의 중대한 전환입니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영상을 높이 우러르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동서고금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장군님과 같이 그처럼 높은 찬사와 칭송을 받아 본적이 있으며 그처럼 폭풍 같은 인기와 세계적인 이목을 모아 본적이 있었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은 정녕 절세의 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지난 1년동안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민족자주기운이 거족적범위에서 전례없이 고조되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계에 떨친 긍지 높은 1년이였습니다.

오늘 민족자주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간직하고 있는 민족공동의 의지로, 지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초석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으며 조국통일운동은 자주의 궤도에 들어 서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위력한 자주의 보검에 의해 굳건히 지켜 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로정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현실로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1년은 또한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통일로 나가려는 민족의 지향이 그 어느때보다 강렬하게 분출되고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조국통일운동이 힘차게 벌어 진 자랑찬 1년이였습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북과 남사이에는 당국과 민간급에서 여러갈래의 대화와 접촉들이 이루어 지고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예술인, 체육인 등 각계층이 오가며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북과 남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단체들 사이에 련대와 단합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여 조국통일운동은 전례 없는 폭과 깊이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힘 있게 전개되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수조차 없었던 이러한 경이적인 사실들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이 가져 온 자랑찬 결실로서 우리 민족은 결코 갈라 져 살수 없는 한 혈육이며 뜻을 합치면 못해 낼 일이 없고 그 어떤 기적도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내외에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힘 있게 울려 나오고 국제적련대성이 일층 강화된 격동의 1년이기도 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손을 잡고 민족주체적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려는데 대해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인 정당, 단체들은 물론 제도와 리념을 달리하는 나라와 정부들까지도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지배와 예속, 랭전과 대결정책의 희생물로 되여 우려와 동정의 대상으로 되였던 우리 나라와 민족은 오늘 자주의 상징, 세계가 부러워 하는 존엄 있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더욱 높이 떨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이후 오늘까지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된 긍정적인 사태발전과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

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장군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에 대한 높은 사명감, 강철의 의지와 비범한 담력, 한없이 넓으신 포옹력과 아량으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온 겨레를 하나로 묶어 세워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온 겨레의 크나큰 기쁨과 감격속에 북남사이에 이루어 진 어느 하나의 상봉과 래왕, 회담과 협력 사업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데가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운명의 수호자이시고 조국통일력사의 창조자이시며 21세기를 대표하는 민족의 걸출한 령도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 인류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존경과 칭송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높아 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조국통일업적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 나가려는 민족의 통일대행진은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온 겨레의 자주적인 통일대행진은 안팎의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이를 반대하는 투쟁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조선반도에서의 화해와 통일의 움직임을 달가와 하지 않는 미국과 일부 반통일세력들은 내외에서 한결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거세하고 그 리행에 제동을 걸어 보려고 여러모로 책동하였습니다.

그들은 당치도 않게 ≪핵문제≫와 ≪미싸일문제≫ 같은것을 걸고 감히 그 누구에 대해 ≪강경대응≫을 운운하는가 하면 ≪대북정책검토≫이니, ≪검증≫이니 하는것들을 들고 나오고 ≪공조≫, ≪안보≫를 떠들면서 좋게 발전하기 시작한 북남관계에 찬물을 끼얹기도 하였습니다.

남조선에서는 ≪공조≫와 ≪안보≫의 이름밑에 외세와의 정치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이 련이어 벌어 지고 있으며 동족을 ≪주적≫으로 선포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해 나선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몰아 탄압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랭전과 대결의 역풍이 불어 오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북남관계가 순조롭게 전진할수 없으며 6.15공동선언이 제대로 리행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시였습니다.

온 겨레의 한결 같은 념원과 지향을 반영하여 나온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을 외세가 주제 넘게 시야비야하고 그 리행에 간섭해 나서는것은 결코 허용될수 없는 일입니다.

북과 남이 화해를 하고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자고 하는데 여기에 외세가 낯을 내밀고 ≪강경≫을 운운하는것은 전혀 분수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이며 외세의 간섭에 대한 민족의 엄숙한 경고입니다.

우리에게는 ≪강경≫이 통할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경≫을 웨치기에 앞서 그로하여 저들에게 빚어 질 후과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외세는 오늘 북과 남에서 울려 나오는 각성한 우리 민족의 쌓이고 쌓인 분노의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며 변화된 정세와 현실을 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에서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6.15북남공동선언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의지가 담긴 귀중한 민족의 전취물입니다.

북과 남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은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6.15북남공동선언을 지키고 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립장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확약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간섭책동에 동조해 나서서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북남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응당 ≪공조≫를 해도 동족과 ≪공조≫를 해야 하며 접촉과 대화의 대상인 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통일애국운동단체들을 ≪리적≫단체로 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내외의 도전을 물리치고 21세기 첫해인 올해에 어떻게 하나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결정적으로 열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올해초에 있은 민족통일 2001년대회에서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이 되는 6월 15일부터 새 세기의 첫 8.15광복절까지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민족의 한결 같은 조국통일의지와 단합된 모습을 내외에 과시할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과 각계각층이 여야와 사상, 정견을 가림없이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민족공동의 행사로 뜻 깊게 기념할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 해외에서 달아 오르고 있는 이러한 통일애국열의를 한데 모아 민족공동의 행사를 의의 깊게 진행함으로써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야 하며 온 민족이단합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힘 있게 떠밀고 나가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즈음한 공동통일행사로서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민족의 기상과 존엄이 비껴 있는 조선의 명산 금강산에서 개최하는것이 좋겠다고 인정합니다.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개최되여 여기에서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공동선언발표의 사변적의의를 되새기고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할바없이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힘 있게 추동하는 새로운 활력으로 될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을 맞이하여 북과 남, 해외에서는 또한 자체의 실정에 맞게 기념모임을 비롯하여 북남공동선언의 숭고한 정신을 구현한 여러가지 행사들을 다양하게 조직할수 있을것입니다.

북남공동선언발표 1돐에 이어 광복절까지 계속되게 될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는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떠밀고 나가기 위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가며 그것을 거족적범위에서 더욱 힘 있게 고조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돐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의 제반 사업을 온 겨레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합동회의에서 우리측 준비위원회를 내오는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번영의 새 세기에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발걸음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다 21 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북남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 나섬으로써 올해에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기어이 열어 나가며 통일된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건설하여 희망찬 새 세기를 우리 민족의 력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전성기로 빛내여 나아갑시다.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의 발표로 온 경향 땅이 기쁨과 감격, 흥분으로 끓어 번지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1돌이 되었습니다. 그간 남과 북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진행해서 우리 겨레를 기쁘게 해줬는데요. 이 시간에는 먼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지 윤정원씨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세계를 경탄시킨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데요. 경향각지의 민중들은 그때의 환희와 감격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올해에 조국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갈 통일열기에 충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아시다시피 지난 1월 10일 평양에서는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민중의 참가하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가 열렸고 대회에서는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이 됐죠. 호소문의 기본내용을 보면 민족끼리 힘을 모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새 세기 첫해인 올해에 조국의 자주적 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호소문에 있는 것처럼 올해에 조국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열려면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면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하거든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회자 :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고 민족자주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윤정원 : 그렇죠,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서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하죠. 6.15남북공동선언에도 밝혀져 있는 것처럼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때만이 우리 민족은 자체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윤정원 : 네, 그러자면 민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해야 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특히 침략적,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외세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자 :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의 하나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옳습니다.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 자신이거든요. 그 어떤 외부세력도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자 : 네,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윤정원 : 그건 한마디로말해서 7천만 겨레가 통일영수를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결집되어야 한다는 그겁니다. 다시말해서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주위에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거죠.

사회자 : 네, 전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죠.

윤정원 : 그렇죠. 모든 물체에 핵이 있듯이 통일단결에도 중심이 있어야하죠. 우리 민중의 통일단결의 중심은 바로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신 **김정일**장군님이세요. 7천만 겨레가 **김정일**장군님의 주위에 하나로 굳게 뭉칠 때 조국통일의 문은 반드시 열리고 통일은 이룩되고 말겁니다.

사회자 : 네, 그럼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장군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굳게 뭉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정원 : 그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단결하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나가야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민족공동의 이익보다 앞세워서는 안되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에 있건, 북에 있건, 해외에 있건 모두가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해서 **김정일**장군님의 주위에 굳게 뭉쳐야하죠.

사회자 : 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올해에 통일의 문을 결정적으로 열려면 지난해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마련된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줄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문제해결에 그 주인이고 담당자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거역하거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곧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가, 안하려는 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회자 : 우리 민족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능히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원천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것은 통일의 영수이시고 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고 그분의 탁월한 영도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민족의 통일애국역량, 다시말해서 주체적 역량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겨레는 한 핏줄을 잇고 반만년을 한 강토위에서 화목하고 단란하게 살아온 한 민족이라는 정신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날뛰어도 민족의 대단결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자 : 네, 우리 7천만 겨레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주위에 굳게 뭉쳐서 그분의 영도를 높이 받들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하나와 같이 매진함으로써 통일의 반드시 앞당겨오고야 말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비결 윤정원씨 모시고 애기 드렸는데요. ****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였죠.

얼마전에 이회창이 건국대학교 학생들앞에서 강연을 한다면서 대학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이회창은 대학정문을 막아선 학생들의 저지로 세시간나마 버티다가 강의도 못해보고 쫓겨가는 꼴을 당했습니다.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훼방을 놓고 있는 반통일역적에게 처해진 응당한 대접이라고 할겁니다.

현 시국과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제

구국의 소리 주체 90년 1월 31일 - 2월 1일

우리 민중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은 오랜 세월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 길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불퇴전의 의지와 기개를 과시하며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위업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이후의 현 시국은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봉대인 민족민주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물줄기는 냉전과 대결에서 화해와 단합, 협력에게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족자주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세로 우리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자기 주장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냉전대결체제에 기반하고 있는 당국의 가혹한 탄압 대상으로 되어왔고, 자기 민중적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숭미반북의식 때문에 소수의 투쟁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독재에 묶이어 자기의 활동공간을 넓혀 나갈 수 없었고 보수세력과의 힘겨운 대결을 해오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 땅에서는 국민의 의식구조가 반미연북에로 더욱더 바뀌게 되었으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세의 변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진영은 자기 운동의 당당한 명분과 확고한 대중적 지반, 그리고 유리한 활동공간과 우세한 세력입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인 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민주운동권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 시대와 민족사의 외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어린 파쇼탄압과 공안정국도 용감하게 이겨내고,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심각한 이념논쟁과 노선대결도 슬기롭게 극복하며 하나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온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지금 민족사의 중대한 시점에서 분파적 행동과 정국변화에 따른 전략전술적 혼선, 일부간부들과 활동가들 속에 나타나고 있는 편협한 사업방법과 작풍 때문에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대중의 달아오르는 투쟁열기를 하나로 모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60년의 4.19항쟁과 80년의 광주항쟁, 87년의 6월 항쟁과 그 이후 확산된 노농대중의 대중적 진출로 민족적 기개와 민중적 위력을 널리 과시하면서 투쟁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시련 속에서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며 대중운동의 중심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민족민주운동이 이것을 디딤돌로 삼고 새롭게 도약하여 명실공히 현 대세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한국민중의 참다운 선봉대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자기입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주어지는 책무를 다해나가자면 자기 운동의 좌표를 바로 정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의 단합된 역량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절박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을 관철하는 데로 모든 힘을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 자신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7천만 겨레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한국의 금후 정국은 6.15 공동선언 지지세력과 반대세력 간의 대결로 집약되고 그 결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6.15 공동선언 이후 고조된 남북화해와 통일분위기를 이 땅에 정착시켜 자주통일로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과제는 없습니다. 6.15공동선언에 당국이 서명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절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당국에만 강요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6.15 공동선언을 파기하고 대세의 흐름을 냉전에로 되돌려 세우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1971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 유신정국으로, 1992년의 남북관계기본합의서가 대결정국으로, 1994년의 남북정상회담합의가 신공안정국으로 뒤바뀌게 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세력이 오늘의 유리한 남북화해 정국을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 역사의 곡절이 다시금 재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밑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민중이 통일열기를 6.15공동선언관철에로 모아 나가면서 그의 실천투쟁을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시켜 내외 반통일세력들의 역전 기도를 분쇄하고 대세의 흐름을 민족자주통일에로 종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전개해온 자주민주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로 총집결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6.15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주를 실현해 나가려면 이 땅에서 미제식민지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획득하며, 외세와의 공조체제를 허물어 버리고 민족공조체제를 구축하며, 사대매국적 근성의 발현인 공미론을 척결하고 반미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6.15공동선언에 명기된 남북 간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해 나가려면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에 궁극적 목표인 민족적 대단결에 기초한 자주통일을 실현하려면 내외 분열주의자들의 불순한 기도를 저지파탄시키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해 가려면 그의 장애물인 외세와 우익보수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며,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주범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민족의 **인 6.15공동선언을 세계화 전략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꾀하면서 통일 후에도 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변하며 신자유주의 정책과 아이엠에프 구조조정 정책강요로 한국에 대한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전력증강과 북침전쟁연습으로 남북화해분위기를 파탄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군철수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군의 침략적 술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민족화해분위기 속에서 반미기운이 더욱 고양되고 있으며,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거세찬 반미분출 속에서 반미투쟁의 튼튼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이 같은 유리한 국면에 걸맞게 미군철수 구호를 전면에 제기 하고 반미운동을 더욱 대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지배기반의 커다란 위기를 놓고 우익보수세력들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걸음마다 제동을 걸며 반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우익보수반통일세력의 이 같은 기도를 제때에 분쇄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대 공세전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서는 사활적인 과제는 분파주의를 척결하고 운동대오의 단합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 여하에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사활이 걸려있고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승패가 집약돼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불패의 위력도 필승의 담보도 바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통일단결에 있습니다. 운동대오의 통일단결을 위해서는 분파주의부터 척결해야 합니다. 분파주의는 조직을 분열시키고 동지들 간에 신뢰를 지울 수 있는 암입니다. 오늘 크거나 작거나 운동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파주의를 극복함이 없이는 민족민주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동 ** 의 좌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통일운동대오에서는 통일운동 지도부가 하나로 단합되어 통일적으로 통일운동을 지도해 나가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운동조직들은 새 세기에 들어선 정세의 요구와 환경에 걸맞게 그리고 운동단체들의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분파주의 경향을 대담하게 없애버려야 하며 모든 것을 단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운동대오의 단합을 무조건 이룩해야 합니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력하려면 상대방을 질시하고 시기 할 것이 아니라 서

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주장과 고집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과 통일단결을 절대시하는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며 실천투쟁 속에서 손잡고 힘을 합쳐 나가야 합니다.

광범위한 각계층 민중이 통일운동의 주인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의 전환기적 국면은 단결의 폭을 확대하고 사상의지적 단결과 순결성을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현재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서로 단합하는 대승적 안목에서 솟구쳐 오르는 각계민중의 통일열망을 뜨거운 품과 큰그릇에 담아낼 수 있는 거족적인 통일단결의 운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 시기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절실한 과제는 대중투쟁 형식과 방법을 대담하게 개선하고 지도간부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혁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 시기는 기층민중이 반미자주화와 통일운동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때입니다. 조성된 정국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으로 하여금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운동으로, 광범위한 대중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현실과 동떨어진 교조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방식과 대중과 유리된 투쟁방식에서 벗어나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투쟁구호와 투쟁방식을 구사, 창출해내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현실은 민족민주운동대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백해무익하고 유해로운 일부 편협하고 졸속한 사업방법과 관료주의적 사업작풍을 시급히 시정극복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운동가들은 현실 속에 들어가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벗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수렴하는 **이 되며 그들의 투쟁열기를 대중운동에로 견인해 내는 불씨가 되어 민중의 자주성 실현에 일신을 산화해 가는 충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제와 수구세력은 대세의 흐름에 거역해 나서고 있으나 전반적 정세는 민족민주운동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습니다. 폭압으로 이어지는 시련의 언덕마다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꿋꿋이 싸워 자주민주통일의 중심에 우뚝서게 된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의 전환적 국면 속에서 새롭게 도약하여 필승의 신념을 안고 6.15 공동선언실천 투쟁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승리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 전진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편에 있습니다.

통일연대와 민화협이 공동대회

≪해설≫ 민간통일운동, ≪하나의 대회≫ 가능해졌다

23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7대 종단(개신교, 불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으로 구성된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가 공동으로 발족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하루전인 2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1994년 범민련 남측본부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민족회의)≫의 분열 이후 7년만에 ≪하나의 대회≫로 공동행사를 치룰 토대를 마련했다.

1994년 이후 남측의 민간통일운동은 8.15 행사를 앞두고 분열되다가 2-3개의 독자행사를 치뤄 왔으며,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크게는 민화협과 통일연대 두 축으로 나눠져 있었다.

민화협은 현 정부가 들어선 1998년 대체로 관변 성향 및 보수 색채의 단체들과 정당 등 200여 시민. 사회. 정당. 종교단체들을 망라해 구성되어, 주로 남남대화 사업을 해왔다.

이에 비해 통일연대는 올해 3월 15일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온 범민련, 한총련을 비롯한 전국연합, 민주노총 등 진보적 성향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되었다.

6.15 선언 1주년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20여일 앞두고 출범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남측 민간통일운동의 현주소를 담고 있다.

먼저, 민간 차원에서 남북 공동으로 6.15 선언 1주년과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사업들을 할 남측 통일행사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는 점이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17일 범민련 남측본부에 ≪통일연대가 민화협, 7개 종단과 공동행사기구를 빠른 시일안에 결성하고 북측에 남북공동행사를 제안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바 있어, 이번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출범이 북측 민화협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남측의 민간통일운동단체의 공동행사기구로서, 북측 민화협의 공식 파트너가 될 공산이 커졌다.

그동안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분열된 채 2-3개의 독자대회를 열어왔으며, 남북공동행사의 경우 범민련의 남, 북, 해외 3자연대에 의해서만 범민족대회가 치뤄져 온 점과 비교해 볼 때 이는 커다란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94년 이후 7년만에 남측 민간통일운동단체의 공동행사기구 틀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민간통일운동의 다른 한 축이었던 통일연대가 곧 추진본부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남쪽의 보수.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정당까지를 포괄하고 있어 일단 외형적으로는 명실상부한 범국민적인 공동행사기구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민화협과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가 함께 추진본부를 발족시키기까지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통일연대 내에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 참가여부를 놓고 진통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통일연대의 대표자회의에서는 자통협과 민주노총 등이 거세게 반발했으며, 특히 표결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협은 94년 민족회의 때부터 한 덩어리였다가 현 정부 들어 민족회의를 나와 새롭게 만들어진 민화협과의 역사적 불편함 때문에, 또한 민주노총은 최근 김대중정권퇴진운동에서 보여지듯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민간통일운동의 분열상으로 묘사하는데, 이보다는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성사에 방점을 두고, 통일운동의 소수화보다는 대중화에 그리고 계급적 관점보다는 민족적 관점에 서기 위한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는 진보적인 단체에서는 관변단체로 인식되어 온 민화협과 공동사업을 하자는데 있어, 무엇보다 그간 이적단체로 규정되어온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6.15 1주년 효과로 보는 측도 있지만 그보다는 민이든 관이든 6.15공동선언을 통일의 이정표로 보는 시각이 강한 만큼,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셋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주년을 앞두고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소강상태인 점에서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민간통일행사가 그 공백을 메꿀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즉 남북 민간 차원의 대규모 공동행사가 역으로 소강상태인 남북 당국자 관계를 견인해 남북대화재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6.15 공동선언부터 7.4 남북공동성명을 거쳐 8.15 기념행사에 이르기까지 2 달간에 걸쳐 진행될 것임으로, 어떤식으로든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몇가지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색깔과 성향이 서로 다른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의 참여단체들이 ≪통일≫을 향해 하나의 목소리를 낼지, 또 통일연대가 소속단체인 자통협과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남측 민간통일운동은 ≪단일한≫ 공동행사기구이자 남북공동행사기구인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를 출범시킴으로써, 그간의 분열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하나의 대회≫를 열 수 있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계환 기자(khlee@tongilnews. com)
통일뉴스 2001-05-24 사이트:www. tongilnews. com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 학생 추진위원회 건설

6.15-8 · 15 민족통일촉진기간을 함께 준비하고자 지난 5 월 24 일 간담회를 가졌던 청년단체들이 참여인원을 더해 2 차 모임을 가졌다. 오후 4 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실에 모인 이들은 하루 전 진행됐던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명칭을 비롯한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지었다.

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김형주씨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이남 사회 청년 · 학생들이 모여 민족공동행사를 준비해 갈 이 연대기구의 이름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 학생 추진위원회≫라 결정하고 앞으로 이 이름 아래 함께 활동을 해나갈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후 활동과정에서 명칭을 수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생길 경우 유동성 있게 대처한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범청학련 대표자의 발제로 회의가 이어졌다. 기간 통일운동을 각계에서 벌여오던 많은 청년 · 학생단체들이 한데 모여 한힘으로 활동하며 그 힘으로 6.15-8 · 15 민족통일촉진기간을 준비하고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하고자 연대기구를 결성한다는 데에는 참석자 모두가 수긍했다.

1. 6.15-8 · 15 민족통일촉진기간을 성대히 성사시켜 내기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2. 민족화해 범국민협의회, 7 대종단,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단결된 정신으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거족적인 통일행사를 통한 민족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통일열기 확산을 위하여 남북해외 청년 · 학생 토론회와 통일대축전을 준비한다.
4. 민화협청년위, 7 개종단 청년위,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참가 청년단체와 개별 청년, 학생 단체 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을 포괄한다.

조직체계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서 각 참가단체의 대표들로 공동대표를 구성하고 참가단체의 성격으로 분류되는 각 단체의 대표자들에게 상임대표의 지위를 부여했다. 민화협 청년위원회의 중심활동단체인 한국청년연합회(KCY)와 지난 2 월 창립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제7종단청년위원회, 범청학련 4개 단체에서 상임대표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했으며 논의가 길어졌던 한총련의 지위에 대해서는 ≪상임대표와 대표체를 4개단체, 4인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그간의 한총련의 이남 학생운동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대표단회의에서 한총련의 활동내용과 지위를 최종 결정한다≫고 위임했다.

≪모든 것은 앞으로 통일운동을 더 잘해갈 것을 기준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한 참석자의 발언처럼 이들은 이제까지의 각기 다른 활동으로 인한 시각차를 과감히 접고 가깝게는 6.15-8 · 15 민족통일촉진기간과 민족공동행사를 성대히 성사하고 멀리는 조국의 통일을 안아오는 것을 위해 한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오는 6월4일 각계에 발족보도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갈 이들은 6월8일 ≪6.15 남북공동선언 1 주년 기념 청년 · 학생 토론회≫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년 민족공동행사 청년 · 학생추진위원회 발족식≫ ≪6.15 남북공동선언 1 주년 청년 · 학생 기념식≫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6월 13, 14일에 걸쳐 금강산에서 진행될 남북해외 청년 · 학생대토론회에 참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소영기자(leesy@minbo.com)
E-mail : jajuminbo@minbo.com Homepage :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청년, 학생 통일토론회 (남측) 결의문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룰 수 있



다는 것을 온 겨레와 세계 만방에 선포한 대선언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으로 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통일열기가 높아지고 남북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들간의 막혔던 교류의 물꼬가 터지고 있어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1년간 6.15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으로 자주통일의 길을 열어내려는 우리 겨레의 노력이 폭넓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이 최근 지체되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이에 편승한 세력들의 준동에 기인한 것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굳게 단결할 것을 더욱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평화이고 통일이다.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재난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 기치 아래 굳게 단결해 이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애국애족이고 우리 민족의 활로가 있다는 자각 하에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 나갈 것입니다.

1.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철저한 이행으로 남북해외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처럼 찾아온 통일의 기회를 놓쳐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철회운동, 국가보안법과 범민련, 한총련 이적규정을 비롯한 분단장벽 제거 운동 등 자주와 대단결 운동을 적극 벌여나가 6.15남북공동선언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낼 것입니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에 명기된 우리 민족의 자주적 단결, 연합-연방 방식의 통일, 교류와 협력,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입니다.

2. 우리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청년, 학생들을 굳게 단결시킬 것입니다.

청년, 학생들은 새세대이자 조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청년, 학생의 임무를 자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모든 것을 다 떠나 굳게 단결하고 그 대열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고 통일을 바라는 모든 청년, 학생들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사업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청년, 학생 단체, 개인들의 단결을 도모해 통일조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3. 올해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거족적인 통일운동으로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한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가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하여 겨레에 희망을 안겨주고 연대와 단합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중대한 행사로 되기에 이를 성대하게 치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6.15-8.15 전기간 정부와의 협력 밑에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범민족적인 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청년, 학생 차원의 남북자주교류와 8.15 통일대축전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거족적인 통일운동기간으로 빛내고야 말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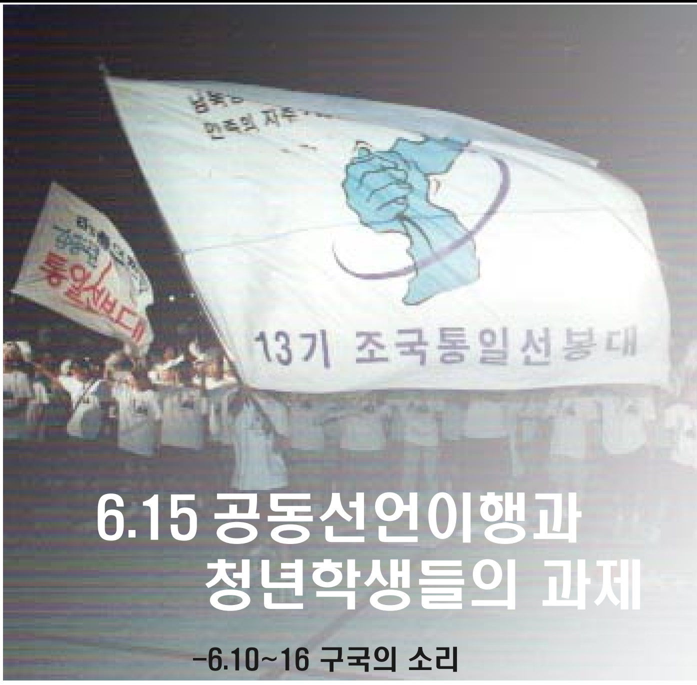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민족단합의 새 장을 열어냈습니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다면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우리 청년, 학생들의 실천에 언제라도 함께 하기를 모든 청년, 학생과 7천만 겨레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1년 6월 8일

6.15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청년· 학생 통일토론회 (남측) 참가자 일동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청년· 학생추진위원회





6.15 공동선언이행과 청년학생들의 과제

-6.10~16 구국의 소리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겨레의 **한층 *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 이 같은 통일지향에 부응해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겁니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앞장서는 것이야 말로 청년학생들이 겨레앞에 지닌 책무를 다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그에 관해 오일씨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온 겨레의 가슴에 통일열기를 한껏 부풀어오르게 했던 때가 어제 같은 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로 통일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통일운동의 앞장에 서서 ***을 남김없이 과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얘기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오 일 : 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솟구치는 격정을 금할 수 없어요. **합의한 **남과 북이 합의해 채택한 남과 북의 정상들이 ** 통일문서는 6.15공동선언이 처음이 아닙니까. 하기에 6.15공동선언은 ****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의의는 자못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레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새세기 통일이정표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회자 :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우리 겨레는 또 얼마나 감격스런 화폭들을 체험했습니까. 역사적인 정상회담에 뒤이은 장관급 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언론사 대표단의 방북, ****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등 괄목할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면 6.15공동선언의 당위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보겠습니다.

오 일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나날에 우리***6.15선언이야말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데 대한 **한 민족자주선언이고 민족대단결선언이며 남과 북이 통일이정*****함께 통일의 길에 들어섰음을 ***했어요. 한마디로말해서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조국통일도 이루어질수 있다는 것을 ****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철저히 이행돼야 할 6.15공동선언이 그 이행을 위한 **여정에서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학생들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 나가야 하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 일 : 무엇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자주정신으로 투철히 정신무장하고 우리 민족을 ***외세의 지배와 간섭책동을 배격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15공동선언을 방해하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양민학살진상규명과 ***투쟁,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투쟁을 **** 주한미군철수투쟁과 결부시켜 전개해야 할겁니다.

사회자 : 외세의 기대어 무엇을 이루어보려는 사대주의적인 발상에 대해 철저히 **하고 견결히 반대배격하는 것도 중요한 투쟁과제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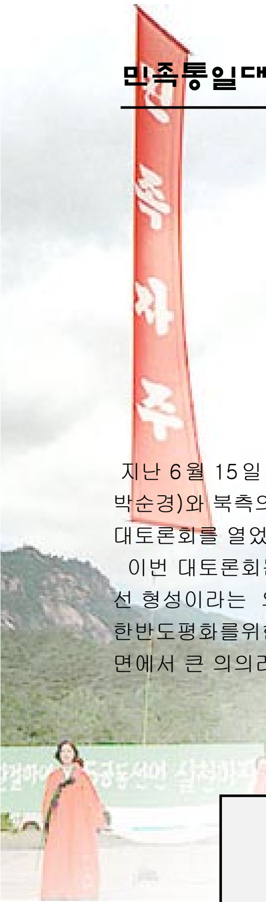
오 일 : 옳은 말씀입니다. 통일문제해결에서 ****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주체적 입장을 철저히 견지해해야 하죠. 우리 청년학생들은 외세와의 공조책동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위한 투쟁에도 힘있게 ***고 반통일극우세력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는 것 역시 중요한 **봅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해야 해요. 반통일적인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6.15공동선언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 반대하면서 반북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반동적 보수정객들과 ***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어 민족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

사회자 : 정말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청년학생들이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면 학생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는 것은 물론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 일 : 그렇습니다. *****통일의 이정표이죠. 그래서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겨레 모두가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극복하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어요.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는 남과 북, **과 정당,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행에 동참하는 단체라면 어느 단체든지 함께 손잡고 긴밀히 연대하면서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인 6.15부터 8.15까지의 기간에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네, 통일의 밝은 전망이 열릴수록 청년학생들에게 거는 민중의 기대 또한 크다고 보는데요. 우리 청년학생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 것으로써 민중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1 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지난 6 월 15 일 이북의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 호텔에서 남측의 `6.15 공동선언실천을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단장 이돈명, 박순경)와 북측의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북측준비위)`(위원장 김영대)는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토론회에는 남북, 해외 대표단 240 여개 단체 67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1948 년 4 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이래 최대의 남북간 민간차원의 행사로서 하층통일전선 형성이라는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남측 대표단의 경우 7대 종단(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라는 3축이 단일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토론회에 참가하였는데 이는 이남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다음은 이번 민족 대토론회에 제출되었던 남북 대표들의 공동보도문과 기사 입니다. －편집자 주－

6.15 공동선언 발표 1 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 동 보 도 문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하여 2001년 6월 15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6.15 공동선언 발표 1 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본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북측에서 여러 정당들과 민족화해협의회, 조선직업총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 대표 200 여명과 남측에서 7 대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비롯한 여러 정당, 단체의 대표자 및 각계각층에서 450 여명, 해외 각 지역 동포대표 20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의의 깊은 전 민족적인 회합이었다.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뜻깊은 의의를 되새기면서 6.15 공동선언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하여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 이행을 힘있게 추동해 나갈 한결같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남북정상들에 의해 채택된 6.15 공동선언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이며 새 세기에 우리 민족이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공동강령, 공동 이정표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로 되며 조국통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는 온겨레가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적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 연합을 적극 실현애 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민족의 화해와 신뢰를 다져 나가기 위하여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며 민족의 염원에 맞게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민족통일대토론회 참가자들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6.15 공동선언을 실천적으로 떠밀고 나가기 위한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벌려 나감으로써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발표 1주년이 되는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데 적극 기여할 결의를 굳게 표명하였다.

2001 년 6 월 15 일
금 강 산



세계의 명산 금강산에서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성과리에 진행된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15일, 민족통일대토론회가 금강산에서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을 비롯한 이북의 각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남측에서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범민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한총련 등을 비롯해 여러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범민련 미국지역본부대표 등 20 명의 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했고 각계 인사 250 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축하연설들이 있었는데 연사들은 일치하게 지난해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며 조국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한 애국애족의 기치이고 민족자주의 통일강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사들은 남과 북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가장 힘있는 방도는 민족대단결이며 그것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 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얼마전에 평양에서 있은 이북의 정당, 단체 합동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발표 1 돌에 즈음한 공동통일행사로서 남과 북, 해외의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금강산에서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남과 해외의 많은 정당, 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이 이 애국적인 행사에 열렬히 호응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한돌을 맞이한 뜻깊은 때에 민족분열이래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많은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우리 나라 통일운동사에 기록될 또 하나의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진행된 이번 민족통일대토론회는 6.15남북공동선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자주의 기치이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새 세기 조국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이정표이라는 걸 다시금 내외에 과시했습니다.

또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21세기 첫해에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해 단합의지와 통일의 뜻을 합친 거족적인 대회합으로써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겨레의 통일**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남북의 각정당, 단체들과 각급인사들은 토론회의 정신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데 몸과 마음을 다바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자면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해야 하며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합니다.

남북의 각당, 단체들과 각계층민중이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해 투쟁해 나간다면 분단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협의회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사회자 : 오늘은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는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서 지난 12일에 협의회를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와 관련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함께 했는데요. 먼저 협의회의 상황에 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윤정원 : 협의회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명예위원장들인 세계평화이사회 명예위원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명예위원장, ***지역이사회 위원장,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서기장, 벨기에 *** 국제연락위원회 부위원장들과 서기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사회자 : 네, 그 협의회에서는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씨가 연설했다고 하는데요, 그 연설내용을 간추려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지난해 6월의 평양상봉에서는 한반도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기본핵으로 하는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다고 지적했구요, 조국통일3대원칙에 의거한 공동선언은 한반도통일의 이정표이고 남북민중은 물론 세인들에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선언인 남북공동선 발표된 후 지난 1년간 화해와 통일을 지향한 남북사이의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지만 남북사이에 시작된 화해, 협력과정을 파탄시키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인해 공동선언이행에서는 난관들이 조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나서는 기본과업은 미국의 방해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사회자 : 국제연락위원회 서기장의 보고에 이어서 연설도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포르투칼민주주의계획위원장을 비롯해 여러명이 연설했는데요. 연사들은 일치하게 남북공동선언 채택은 이북의 시종일관한 ***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국제연락위원회가 새로운 정세요구에 맞게 국제적 연대운동을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방해책동을 폭로규탄하는 데로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사들은 최근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은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과정에 찬물을 끼얹고,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진보적민중들과 평화애호세력들이 미제의 평화교란책동의 본질을 똑바로 가려보고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에 합세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연대편지가 채택되었고요, 전세계 여러나라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사회자 : 세계 여러나라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호소문 내용을 보면요, 매우 고무적이라고 봐집니다.

윤정원 : 호소문은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된 후 남북관계는 현저히 개선발전해 여러분야에서 협력과 협조의 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며 남북민중과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통일이 머지않아 이룩될수 있다는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었다고 지적을 했어요. 호소문은 반통일세력들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인위적인 난관들을 조성하고 이 과정을 파탄시켜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호소문은 특히 미국 부시행정부가 집권 첫날부터 남북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책동들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규탄했습니다.

호소문은 한반도의 자주적통일촉진, 국제적 연대운동기간 에 지지 및 연대조직들과 친선협회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세력들이 집회, 좌담회, 성명발표 등 다양한 연대행사들을 조직할것을 호소했어요. 이 호소문은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을 그만두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국제공동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회자 :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협의회 진행과정을 보면요, 국제사회가 6.15남북공동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공동선언이행을 저지하려는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에 분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의 앞길에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밝힌 등대이며 조국통일3대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조국통일의 이정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실현해 나갈 것을 민족과 국제사회앞에 선언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이죠. 지난 1년간의 경험은 공동선언에 충실하면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약속과 행동이 다르면 공동선언을 휴지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은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행동들을 자행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한나라당 패거리들, 특히 이회창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죠. 또 미국은 자기의 침략적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하는 건 예사로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 때문에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연락위원회가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집행위원회 협의회를 진행했구요. 세계 여러나라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들에 호소문까지 보냈어요. 그 호소문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협의회는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주었구요, 내외의 반통일 세력들에겐 큰 타격을 주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번 협의회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자 : 지금까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협의회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세계 여러나라 정부, 정당, 단체, 국제기구들이 국제연락위원회 호소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 통일 여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

기사 출처 : http://www.tongilnews.com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지난 14일부터 16일에 걸쳐 남과 북은 통일 여정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대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치뤘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남북 참가단이 토론자들의 발제에 귀기울이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남측의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2001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추진본부) (단장 이돈명, 박순경)와 북측의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회(북측준비위) (위원장 김영대)는 남북, 해외 대표단 240여개 단체 6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북한의 고성군 온정리 금강산호텔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대토론회) 를 갖는 등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이번 대토론회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정부간 대화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민간차원의 분단사상 최대 규모의 각계각층이 결집한 행사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1948년 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48년 연석회의) 이래 최초이자 최대의 남북 민간 대표들의 회합으로 불리울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신창균(94세, 48년 연석회의 참가자) 옹은 "48년 연석회의 이후 처음있는 일로서 감개가 무량하다. 김구 주석과 김일성 주석이 그때 통일 방안을 예언한 셈이 됐는데 53년만에 성사됐다. 6.15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가 대화합을 해서 남북통일의 물꼬가 콸콸 터지도록 국민들이 뒷받침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남북측 각계, 각 단체 대표들도 48년 연석회의를 많이 거론했다.

특히 남측 대표단의 경우 7대 종단(종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통일연대)라는 3축이 단일한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남측 자체행사와 북과 함께 하는 금강산 대토론회를 이끌었다. 통일연대측 실무를 담당했던 한충목 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등 함께 해본 적이 없는 조직이 20일 동안 6.15선언 실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추진본부를 구성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종단에 계신 분들이 애를 많이 썼다" 며 연대사업 성공의 공을 돌렸다.

사실 종단이나 민화협, 통일연대도 하나 하나가 연대조직으로서 내부 조율도 결코 쉽지만은 않은 조직이다. 김종수(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 신부는 "종단의 경우만 봐도 종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종단이 합치다 보니까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전부 해야" 했고, "사회단체들도 참가 단체들이 자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돼서 지분주장이 특히 많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등 성격이 다른 단위들이 조율해가며 함께 가는 과정" 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94년 이후 남측에서 한번도 단일한 대오와 목소리로 통일행사를 치뤄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6.15선언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남남(南南)간의 첫 연대사업의 결실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대토론회의 전체적인 기조는 6.15 공동선언 이행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돈명 남측 단장은 "6.15 공동선언은 민족화해의 대장정이며, 온 세계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알린 민족의 쾌거" 라고 평했으며, 대토론회 북측 토론자로 나선 김세민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앞에 새롭게 조성된 불안정한 정세앞에서 우리 겨레는 6.15 공동선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민족공동의 조국통일지침으로 확고히 고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한미군철수나 연방제 통일방안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발제문은 물론 대토론회의 결과가 담긴 공동보도문 에서도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남과 북 주최측이 다양한 구성원을 갖는 민간차원의 남북공동행사에서 단결을 해칠 수 있는 과격한 주장이나 구호가 나오는 것을 삼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토론회가 남북해외의 각계 대표자들의 발제문 낭독으로 끝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천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은 " 연방제나 미군철수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는 모두 함께 하기 위해 사려깊게 배려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영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집행위원장은 " 토론회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것으로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실천해야될 구체적이고 생생한 보고가 안돼 아쉬웠다" 고 평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남측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측이 북측 초청장까지 받은 참가단 중 6명을 출발 당일에서야 방북 불허 조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임에 틀림없으나 이들은 대부분 현행법상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법무부 측에서 방북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달리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이 통일연대 소속으로 대표단을 파견한 것은 사실상 범민련과 한총련의 합법화로 이해될 수 있다. 한총련 소속 박우람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한총련 깃발을 내걸지는 못했지만 한총련 대의원이자 당연직 중앙위원인 제가 방북했다는 것은 한총련이 방북했다는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비전향 장기수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씨의 방북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지금까지 비전향 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된 적은 있지만 북의 땅을 밟고 돌아오기는 처음이다. "정말 참 특별한 일이다. 이름하여 비전향 장기수가 합법적으로 갔다 온다는 거, 아 바로 통일은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과감한 결단 속에서 오는구나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송별식을 마치고 남측 참가단이 버스에 승차하여 북측 대표단의 환송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 기자]

이번 대토론회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은 그 구성도 다양했고,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견해도 달랐으나 모두가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성균관 하유집(70세) 부관장은 이번 행사 참여 소감을 "기쁨은 말할 수 없다. 남북이 체제를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를 만드는데 신경쓴다면 통일이 안될게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 심재환(43세) 변호사는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데서 법조인으로서 참가한게 너무 기쁘고 이행의 길에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15일 오전에 열린 대토론회, 문예공연, 오찬 연회, 모란봉 교예단 공연과 부문별 간담회, 16일의 금강산 구룡연 산행, 공동 점심식사, 송별회 등 시종일관 남과 북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문별 간담회나 공동산행은 북측이 과감히 수용하여 이루어진 특별한 행사였다. 2차 실무접촉 남측 대표를 맡았던 변진흥 추진본부 집행위원장은 "북측은 남북 연석회의 이후 처음으로 각 단체.계층별 대중적 만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다며, "6.15 선언이 실질적 만남과 접촉의 물꼬를 튼 계기가 되었고,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행사이므로 북은 성의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15일 밤에 열린 남북 부문별 간담회는 정치, 통일운동, 농민, 노동, 청년, 종교, 여성, 경제, 문화, 학계 등 10여 부문으로 나눠 열렸으며, 각 부문별로 남북측 각 10명 내외가 참가했다.

다양한 부문별 전문가들이 남북간에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눈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부문별로 북측의 공식 접촉 창구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나 구체적 토론의 진전은 부족한 편이었다.

대토론회와 오찬 연회에서의 좌석배치도 최대한 남북간 부문별 대화가 가능하도록 배려했으며, 이런 만남의 과정은 금강산 산행으로 이어져 그 어느 행사 때보다도 남북간 교감의 시간과 폭이 컸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마친 남측 참석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북측의 호의에 감사를 표했다. 남측의 이돈명 공동단장은 "행사는 만족스러웠다"며, "민족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서로 다짐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북측의 친구들이 성심성의껏 대해줬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산행에서 개인 해설원을 배려받은 박순경 공동단장은 "북측의 잘 준비된 대접을 받았다"고 인사했다.

북측 역시 이번 대토론회를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수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북측이 토론회 성공에 고무돼 산행 인원을 100명 늘렸다"고 말했으며, 북측 단장인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은 "아주 성과적으로 잘 됐"다며,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하나의 큰 자욱"을 남겼다고 평했다. 북한의 평양방송과 조선중앙텔레비전도 15일 저녁 8시 정기뉴스를 통해 대토론회 소식을 전하면서 "성대히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그간 소강상태를 보여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이후 8.15 남북공동행사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지는 통일 흐름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경 공동단장은 "이 여파가 정부에도 민간, 국민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 전망했으며, 북측 김영대 단장은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가 "6.15 선언 이행의 추진력이 될 것"이라며, "이 분위기를 8.15에는 더욱 고조"시키자고 말했다.

통일뉴스 2001-06-18

민족통일대토론회 관련 보도

기사출처 : http://www.tongilnews.com
금강산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ckkim@tongilnews.com

6.15 공동선언 발표 1돐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대토론회) 가 15일 오전 11시 금강산 호텔 앞마당에서 열렸다.

북측 대표단이 토론회장 입구에서부터 길 양측으로 늘어서서 남측 참가단을 환영했으며, 남북 대표단은 뜨거운 악수를 나눴다.



▶남측 대표단이 단일기를 들고 북측 대표단의 환영을 받으며 금강산 호텔 토론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김종수 남측 의장과 허혁필 북측 의장의 소개인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단일기 게양의식을 갖고 본격 토론회에 들어갔다.

축하 인사말을 통해 김영대 북측 단장은 " 이번 토론회가 우리 민족통일 위업에 새로운 장을 펼쳐가는 일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 메아리가 되어 온누리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돈명 남측 단장은 "6.15 공동선언은 민족화해의 대장정이며, 온 세계에 우리의 통일의지를 알린 민족의 쾌거 " 라며 " 오늘 우리는 역사를 새로 바꾸고 있다 " 며 " 온 겨레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 " 고 호소했다.

이어 남측 6 명과 북측 5 명 해외 1 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남측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은 "6.15공동선언의 본질은 오로지 하나, 즉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것 " 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두가지 원칙을 지키고, 남북간에 합의된 통일추진방안의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세계적 평화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 고 밝혔다.



▶금강산 호텔 앞마당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발표 1돐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 에 참석한 남북측 참가단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북측 김세민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6.15 공동선언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선언한 오늘 외세가 당치 않게 민족문제에 끼여 들어 횡설수설할 리유가 없"다며,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앞에 새롭게 조성된 불안정한 정세앞에서 우리 겨레는 6.15 공동선언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민족공동의 조국통일지침으로 확고히 고수해 나가야 "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은 " 북남협력사업은 성격상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협력이 아니라 동족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민족내부의 협력사업 " 이자 " 북남협력사업은 곧 애국애족사업 " 이라며 " 애국애족의 한마음으로 불타는 모든 조선사람들은 민족의 공동번영과 조국통일위업에 특색있는 기여를 하여야 " 한다고 주장했다

남측 이천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7.4공동성명에서 약속하고 6.15 선언에서 재확인한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 " 이라면서,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조국의 초석을 닦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과 남북공조가 필수적 "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친 남북 대표단은 6.15 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 대토론회 공동보도문 을 발표했으며, 일본당국의 역사왜곡 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 " 을 채택했다.



▶금강산 호텔 앞마당에서 열린 `2001 금강산민족통일대토론회` 주석단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송정미기자]

이후 남측 참가단 450여명과 북측 참가단 200여명 등 650명이 넘는 대규모 참가단이 부문별로 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은 대토론회의 토론자 명단 및 토론문 제목이다.

[토론자 명단]

1. 6.15 공동선언의 본질과 통일의 방향 (손장래 민화협 상임의장)

2.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는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 (김세민 사회과학원 부원장)

3. 화해와 상생으로 민족의 번영을 맞이하자 (한양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4.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은 자주통일의 근본담보 (박태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5. 6.15 공동선언과 조국통일의 기치 아래 온겨레가 하나로 단결하자 (천영세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6.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민족적 존엄 (최창숙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7. 북남협력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애국애족 사업 (정운업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장)

8. 6.15 공동선언과 민족자주 (이천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9. 6.15 공동선언과 해외동포의 역할 (유태영 범민련 미주지역본부 공동의장 겸 재미동포전국연합 부회장)

10. 여성교류와 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하여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1. 6.14 공동선언과 련대련합 (봉원익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12. 남북의 교규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 (임흥기 한국기독교회협의회 국장, 목사)

통일뉴스 2001-06-15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반이회창)

지금 전국민은 온 겨레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반북대결책동에 미쳐 날뛰는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무분별한 망동에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시행정부패거리들이 떠드는 상호주의요 투명성이요 하는 곡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이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고 있는 이회창은 얼마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대의 금강산관광사업을 정경유착의 표본이니, 무모한 퍼주기니, 국민혈세의 탕진이니 뭐니하고 마구 헐뜯으며 온갖 악담을 늘어놓다 못해 대북협력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진 소리를 줴쳤다.



심지어 그는 있지도 않는 이북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이북이 주적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는가 하면 한나라당패거리들은 애국애족의 통일일념으로 이북이 내놓은 6.15민족통일대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극우반동보수분자, 극악한 반통일분자로서의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은 안중에 없이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망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전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이고 민족의 이익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에 아부굴종하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이다.

이회창역적의 반북반통일책동은 미국상전에게 잘 보여 차기 대통령자리를 얻어보려는 어리석은 행악질이며 안팎으로 고립배격당해 파멸의 위기에 처한 반통일분자의 단발마적 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대통령병자인 이회창은 사대매국과 영구분열의 일등공신으로 우리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는 역적중의 역적으로서 이미 전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매장되었어야 할 인간추물이고 악한이다.

반공, 반북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이회창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우리 겨레의 의로운 조국통일운동을 한사코 반대하며 방해해왔다.

지난 97년 대권쟁탈에 나서서 흡수통일을 줴쳐 국민의 비난과 조소를 받은 이회창은 7천만겨레의 지향과 염원이 담긴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주제넘게 남북공동선언에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고 생트집을 걸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의 통일에서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느니, 국민이 환상에 젖어 있다느니, 북과의 교류협력은 이북의 군사력증강으로 된다느니 하는 쓸개빠진 망발을 늘어놓아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배격을 받았었다.

그런데 이회창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그 이행에 온 겨레가 한결같이 떨쳐 일어서고 있는 오늘, 대세의 흐름과 이 땅의 민심도 제대로 분간 못하고 앉을 자리 설자리도 모르며 얼간망둥이, 미치광이의 마지막 발악으로 이북을 악에 차서 헐뜯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민족반역자, 반북반통일광신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돌아가 긴장이 격화되며 정세가 첨예한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이 열리고 있는 오늘, 이회창과 같은 정신병자,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

역사는 민의에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이 온 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의 길에 제동을 거는 반공, 반통일분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 죄악을 결산하고야 말 것이다.

이회창은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매국역적들의 분열주의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동족인 이북과 힘을 합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고 이 땅위에 번영하는 강성부흥조국을 반드시 일떠 세울 것이다.

주체 90 (2001)년 6월 6일
서울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회자 : 오늘은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어 내외여론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먼저 이회창이 어떤 망발을 늘어놓았는지 그에 대해 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윤정원 : 반통일분자로 낙인 되고 있는 이회창은요, 부시행정부내의 강경보수세력들이 떠드는 상호주의요, 투명성이요 하는 곡조를 그대로 되받아 외우다 못해 얼마전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와, 심지어 있지도 않은 북의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주적 망발까지 서슴없이 늘어놓았어요. 또 한나라당패거리들은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6.15민족통일대토론회를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는 데 방해책동만 놀았어요.

사회자 : 네, 어떻습니까. 이회창의 망발을 보면 수구보수반동분자, 반통일분자로서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은 안중에 없이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망발은 말이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정면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행위이며 민족의 이익에 상관없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에 아부굴종하는 흉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라고 봅니다.

사회자 : 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4.8합의서가 발표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때에도 누구보다도 앞장에 서서 시비질을 했구요, 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통일책동을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4.8합의서가 발표된 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시기상조라느니, 북에 가야 얻어올 것이 하나도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비질을 했고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어 내외에서 폭풍같은 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남북공동선언의 자주적통일부문 이 주한미군의 철수여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느니,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언급이 한줄도 없다느니,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의 제동을 거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을 때에는 북에 끌려 다닌다느니, 북에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하면서 여당을 공격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더 좋게 발전시키는데 방해되는 행동만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이 얼마나 못되게 행동을 했으면 국민들이 이회창을 민족의 족보에서 제명해야만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민족반역자, 반북반통일광신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가 대결의 원전으로 돌아가 긴장이 격화되며 한반도의 정세가 첨예한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명백하다고 봐요.

사회자 : 네, 국민들이 일치하게 말하고 있는 것과 통일의 걸림돌, 이회창과 같은 매국집단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하죠.

윤정원 : 옳은 말씀이세요. 화근은 제때 제거하는 게 좋잖아요. 화근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 미국상전에 아부하는 너절한 인간추물을 그대로 두면 통일을 이룩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회창을 정계에서 즉시 물러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해야합니다. 이회창이 총재로 있는 한나라당을 없애버려야 해요. 한나라당을 그냥 두면 통일에 방해만 되기 때문에 즉시 없애버려야 합니다.

사회자 : 역사는 민의에 도전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비참한 파멸과 죽음뿐이였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통일의 시비꾼, 방해꾼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죄악을 결산하고야 말겁니다. 이회창은 경고망동하지 말구요,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로 향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하죠. 후회는 벌써 때 늦은 법이예요. 그런만큼 이회창은 반통일분자의 죄명을 쓰고 국민의 심판대에 나서기 전에 지난날의 잘못들을 국민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와 민족앞에 더러운 오점을 남길 반통일행동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을 비롯한 한줌도 못되는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윤정원 :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지상의 과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에 통일을 이룩해서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 줘야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민중이 단합을 해서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세배격과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분자들의 통일방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시키는데 선차적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일체의 행동을 용납하지 말아야하죠

사회자 : 지금까지 이회창을 비롯한 그 하수인들이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반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회창은 경고망동하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걸 거듭 촉구하면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김영삼이 극악한 반통일적인 망언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이미 보도된 것처럼 김영삼은 일본요미우리신문과의 회견에서 지난 1년 동안에 남북관계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느니 1년 동안에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흥분시킨 것뿐이라느니, ******에서 통일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속이 비뚤어진 자의 심술궂은 극악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넋두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간은 6.15공동선언이행을 통해 남북의 화해분위기와 통일열기가 비할바 없이 높아진 역사적인 시기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3차에 걸치는 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과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이 온 겨레의 기대와 환희속에 성과리에 진행되고 남북연예인들의 상호방문공연과 남측언론사대표단의 평양방문, 남측관광단의 백두산관광, 그리고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연결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라든가 지난 5.1절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들의 통일대회가 성대히 벌어진 것을 비롯해 분단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사건들이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현 시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남북의 화해와 민족의 단합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제는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남북의 화해와 단합분위기로 일관된 지난 1년간이야말로 민족사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순간이라 할것입니다.

김영삼이 내댄 이른바 이북의 남한 군사적 통일도 그렇습니다. 이북은 이미 남북이 승공통일과 적화통일의 위협을 다 같이 가시고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고 주장해 온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를 통해 연합, 연방제방식으로 통일하기로 한 것은 이북이 적화통일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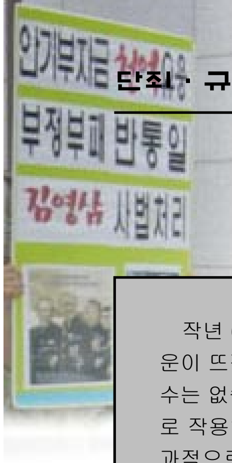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이 지난 1년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서 남북의 드높은 화해분위기를 일시적 흥분으로 모독하고, 반북망언을 해댄 것은 그의 변함없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김영삼역도로 말하면 이미 전에 저지른 반역행위로 해서 민족의 버림을 받은 반역아입니다. 특히 김영삼역도는 남북정상회담개최 자체를 반대했을 뿐 아니라 온 겨레와 세계의 한결같은 지지와 동감을 불러일으킨 6.15공동선언발표 자체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 이행을 각방으로 반대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댄 그의 망발 역시 어떻게 하나 남북화해분위기와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켜보려는 데서 비롯된 반통일적인 망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반통일적인 의도가 뜻대로 되지 않은데서 울화통이 터진 반통일 미친개의 발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영삼이 아무리 짖어대도 남북의 화해와 통일로 향한 기관차는 결코 멈춰 세울수 없습니다.

독초는 뿌리째 뽑고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합니다. 민의에 역행해 반역만을 일삼는 김영삼은 즉각 제거해야 합니다.





김영삼 · 이회창 반대 1인 시위

작년 6.15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전례 없이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이 조성되고,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는 기운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을 향한 흐름은 대세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일을 향한 길이 순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 김영삼,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세력이 민족화해의 흐름을 꺾으려 하고 있고,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통일운동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일운동의 간고함을 말해 주는 것이거니와 이러한 반통일세력과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성과적으로 통일운동이 전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삼,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세력에 대한 1인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노수석열사 추모사업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1인 시위는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 숭실대 야총, 고대 반단투위, 연대 등으로 확산되면서 반통일세력에 대한 투쟁의 모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도동 김영삼 자택, 돈암동, 한나라당사 앞 등에서 1인시위를 전개했던 이들의 총화글을 통신공간에서 발취하여 여기에 싣습니다. 직접 1인시위에 참가했던 이들의 생생한 느낌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 주－

5월 3일 목요일

도착하니 왠지 분위기가 수상했다. 실무자도 바뀌었고 주변 공기가 땡땡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아니나 다를까 바뀐 실무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 저기~ 오늘은 의전상의 문제로 시위를 잠시 중단하면 안될까요? 행차와 환차때는 잠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랬다. 분명히 김영삼이 집에서 나가던가 아니면 들어오던가 둘중에 하나이겠다.

단호하게 거절했다. 직접보라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절호의 찬스를 왜 마다하겠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뒷일이다. 그 경비 실무자는 되돌아가서 무전으로 뭐라고 보고를 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었지만 주위 분위기는 며칠전과 없이 평온했다.

얼마 뒤 경호단들이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골목 초소마다 경호원 배치를 서로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내가 서있던 골목뒤에 있는 또 다른 골목어귀에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경호차량과 검은 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게 아닌가?

다급한 마음에 피켓을 들고 무작정 차량쪽으로 쫓아갔다.

직접 이 피켓내용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달려가려고 하던 순간, 그 차량들은 방향을 틀어 그 골목으로 들어가 버렸다. 5분채 되지 않는 순식간의 일이었고 나 또한 당황한 마음에 아쉬움도 많았다. 하지만 별 수 없었고 여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타고 있었다면 혹시 고개를 돌려 이 피켓을 보았다면 그것에 만족하기로 했다.

오늘은 1인 시위를 했던 날중 가장 긴장되며 성과있었던 날이 아닌가 생각한다.

5월 16일 수요일

오늘도 어제와 분위기가 다름이 없었다.

그동안 1인시위를 돌아볼 때 결국 시위를 더 빛나게 하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더욱 힘나게 만드는 것은 1인시위를 지켜보는 대중들의 반응이었다. 뿜어나오는 대중들의 진출속에서 다양한 요구의 구호는 그 일치성이 보장되었을 때 엄청난 정치적 힘을 발휘한다.

1인시위의 장점은 모여있는 군중집회를 밖에서 바라볼 때보다 훨씬 더 선명한 내용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중들의 반응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3초간의 그 치열한 정치전(?)은 결국 우리가 유인물 한 장을 돌리는 것과 맞먹는 유력한 선전전임을 깨닫게 되었다. 좀더 고민하면 창조적으로 더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기존의 관념을 깨뜨리며 새롭게 재구성하는 대중의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을 기점으로 검찰청 선전전을 보류를 하기로 했다. 강삼재 재판이 진행되는 날 그때 집중적으로 선전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내일은 권희정열사 추모사업회 회원이랑 함께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5월 29일 화요일

민족고대 반단투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 투쟁위원회>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와 연락하여 상도동 1인시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갈수록 반통일세력들의 공동선언을 뒤집어 엎을려는 책동이 노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김영삼이 담방반대 서명운동을 하며 반통일모략질을 일삼고 있는데 이는 이전의 형언할 수 없는 죄악에서 한 술 더 뜬 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담방반대 서명운동 때려치고, 김영삼은 반통일모략질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앞뒤에 걸고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비교적 한적한 곳이였는데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잠시 멈추거나 서행하면서 구호를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어떤 분들은 1인시위자에게 손짓을 하며 격려해주는 등의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인시위가 많은 국민들 속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1인시위는 규탄하고자 하는 대상 바로앞에서 아무때나 절차나 제약없이 진행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선전효과도 뛰어나며 평화적인 정당한 시위방법입니다. 또한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릴레이식으로도 진행되는 등 1인시위가 더욱 발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사회단체들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는데 우리 청년학생들도 1인시위의 모범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영삼 뿐 아니라 반통일세력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1인시위가 단죄규탄의 깃발이 되도록해야 합니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 단죄규탄투쟁위원회는 1인시위의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하여 꾸준히 밀고 나아갈 것이며 반통일세력에게 단죄의 안길때까지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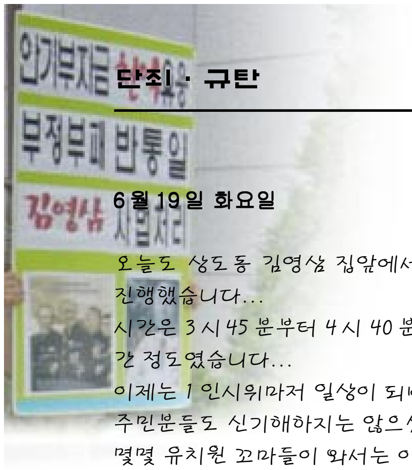
6월 12일 화요일

오랜만에 1인 시위 총화를 한다. 나의 순서가 한참만에 돌아온다는 건 그만큼 1인 시위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증거라는 생각에 뿌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글을 쓴다.

처음에 외롭게 시작한 YS 사법처리 1인 시위는 이제 많은 단위로 전파되어 각 학교에서 먼저 결의를 내오면서 실천투쟁을 하고 있다. 고대가 그랬고, 숭실대 야총이, 그리고 이제는 연대가 투쟁을 받아 안아 상도동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역시 돈암동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되었다. 초기에는 다각적인 1인 시위 형태를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은 '1인 시위는 1인 시위' 라는 생각으로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것만 같이 병행하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분들은 우리들의 선전물이 신기한 듯 계속 바라보시고, 유인물도 곧잘 받아가신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제는 이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추사 회원들 스스로가 직접 1인 시위를 통해 김영삼 사법처리의 정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겠다.

－ 권희정 추사



6월 19일 화요일

오늘도 상도동 김영삼 집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은 3시 45분부터 4시 40분까지 약 한시간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1인시위마저 일상이 되버렸는지 주민분들도 신기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몇몇 유치원 꼬마들이 와서는 이게 모냐며 맑은 목소리로 반통일 두목 김영삼이라고 피켓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미소짓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음세대에게는 이런 투쟁을 넘겨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1인시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대와 총대에서 다녀왔습니다.

계속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선언 가로막는 반통일세력 몰아내자!
반통일세력 몰아내고 조국통일 완수하자!

- 숭실대 야총 -

국방부의 무력증강책동 규탄한다.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는 기간 날로 높아만 가는 통일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연일 반통일 망동을 저지르고 있는 김영삼과 한나라당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몰고 가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격려를 해주시고, 1인 시위장소 주변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차고 자신감있게 1인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이 조국통일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은 멈춤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방부의 무력증강책동이 통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민중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고 서로 합의를 한 마당에 이북을 겨냥한 무력증강책동은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전력증강소동은 그 규모와 액수, 첨단장비수준에 있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의 NMD정책에 편승하여 스탠다드 미사일발사대로 사용되는 ≪MK41≫3기 및 관련부품판매를 미국에 정식 요청하였습니다. 이 미사일발사대도입에 드는 돈은 9천 8백만달러, 여러 관련 부품까지 합하면 무려 5억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최첨단 살인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올해의 국방예산만도 지난해보다 1조원이나 더 많은 무려 15조 4천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앞으로 5년간 35조원을 투자해 초현대식 무기를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군당국이 겉으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해와 협력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이북을 힘으로 제압하려는 검은 속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2000년 국방백서에서는 여전히 이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을지포커스니 독수리니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당국의 전력증강책동과 전쟁연습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려는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헤치는 위험천만한 범죄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온 겨레 앞에 선언을 했으면 상대방을 자극하고 반대하는 발언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국방부가 전쟁연습과 무력증강만을 꾀한다면 좋아진 남북관계도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615공동선언 완전 이행과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을 제때에 제압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려나가야 합니다. 이에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김영삼 집 앞, 한나라당사에서의 1인시위의 투쟁열의를 국방부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공동선언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달려가서 그 놈들을 민족의 심판을 받을 때 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로 국방부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6월 19일
민족고대 반통일세력단죄규탄투쟁위원회

6월 21일 목요일
승환이 (생명과학부 00)

오늘 한나라당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날은 전교조를 비롯한 학생들과 학부모 교수님들이 사립학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진 때였습니다. 한나라당이 반통일집단일뿐아니라 개혁입법까지 가로막는 앞조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수 수구세력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참으로 높다는것을 다시금 알수 있었습니다. 1인시위가 끝나고 그분들에게 유인물은 나눠주며 집회에 한동안 함께 하였습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이제까지 1인시위를 지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힘내서 승리하세요

국보철 1인시위

단국대 조직사건 조작음모 분쇄 1인시위

법원 정문과 지방검찰청 정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시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시사저널에서 와서 취재를 했으며, 지나가는 행인들이 모두들 한결같이 잘하는 것이다, 수고가 많다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이는 반면, 검사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들은 씁쓸한 웃음을 띄며 1인 시위의 모습을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1인 시위를 하는 옆에서 금융노동조합에 속하는 분이 1인 시위를 하셨는데 그분은 피켓을 메고 왔다갔다 하시며 했는데 아버님 말씀은 1인 시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1인 시위는 부동으로 서 있는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만큼의 선전효과를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힘들지 않느냐는 저의 물음에 아버님은 비록 뜨거운 땡볕 아래이지만 감옥에서 투쟁하고 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인 시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정작 공안당국으로서는 어찌 못하여 괜한 짜바리 한 명만 와서 지켜보는 상황이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모습들에 정말로 단국대 학우들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잘 싸웠고 그런 학생들의 모습 때문에 어르신들 또한 게으름 피지 못하고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화제의 초점

사회각계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시간엔 사회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층 민중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낸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보면 남북간의 수많은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위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구속자수가 회담이전 구속자수보다 72%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치권이 국가보안법개폐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다가 사법당국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낸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는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써 사회각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도 결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화일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이북을 통일대화의 일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의 동족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족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법문화한 국가보안법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언론들까지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주체인 북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거부하는 분단고착법이라고 낙인한 것은 우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를 이롭게 한 자, 그와 통신회합을 한 자는 물론, 이적표현물을 제작, 입수, 복사, 소지, 운반, 판매, 취득한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북의 동족과 만나는 것도 범죄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동반자가 되어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이로운 것은 이롭다고 말하는 것 조차 못하게 하고 습니다.

이렇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되는 희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간의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원만히 실현할 수 없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자면 국가보안법을 개폐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사회적 여론에 못이겨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로 엇갈린 주장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그릇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국내만의 관심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기자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은 북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이행에 대한 당국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검증하는 또 하나의 척도로 됩니다. 그런만큼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과 세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가보안법을 개폐가 아니라 즉각 완전 철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하여 조국통일의 새봄을 마중하자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관련하여 한호석소장과 최성원씨의 연구논문을 발췌하여 여기에 싣습니다. 이 논문의 원문은**≪조·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과 **≪두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입니다. 논문에서 한호석 소장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남한의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소멸하기 위한 투쟁이며 6.15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투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민족통일전선 전략을 내세우면서 이를 위한 실천운동방식으로 민족대단결운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성원씨는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



다음은 한호석소장의 연구논문 ≪조·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은 민족민주운동의 전략적 목표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지금까지 민족민주운동이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전략적 목표로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올해 들어 전국연합이 제시한 것이 처음이었다.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는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적 목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자주화와 민주화의 전략적 요구에 복무하는 전술적 요구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은 민족자주위업에 복무하는 투쟁이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은 민중민주위업에 복무하는 투쟁이다. 이 두 갈래의 투쟁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최종적, 통합적 완성단계인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오늘 민족민주운동이 주한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을 벌이는 목적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벌이는 목적은 한결같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전략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승리하고, 그리하여 마침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전략적 요구가 실현되면 그것은 곧 연방제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남(한국)에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우리 나라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강국이 될 것이며,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일강국이 될 것이다. 이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전개해오고 있는 민중의 민족자주화운동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투쟁은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완전히 일치한다.

민족통일전선의 형성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문제는 지금 당면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주한미군 철거와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두 가지 전술적 요구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많은 힘을 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조·미 관계의 경색국면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주한미군 철거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많은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부시정권은 동아시아 10만 병력 유지전략을 자기의 요구에 따라 변경하려 하고 있고 머지 않아 군사전략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정권이 주한미군을 철수해 가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은 북(조선)과 부시정권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의 주한미군 철거투쟁은 그 협상에서 북(조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보조역량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이 철수된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체제가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체제를 민주주의 체제로 교체하고 참된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이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므로 당면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더 힘써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남(한국)의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소멸하기 위한 투쟁이다. 국가보안법과 6.15 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는 투쟁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법을 개정하려는 김대중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 민족민주운동이 승리하려면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전술을 세우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반통일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가장 위력적인 전략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이다. 이 전략이 실천적 운동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 그것을 민족대단결운동이라고도 부른다. 그 전략과 그 운동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공동의 적을 반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전략과 운동이다.

2000년 6월에 이루어졌던 평양회담과 6.15 공동선언 채택은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 민족분열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민족통일전선을 구축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평양회담을 성사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남북의 정부당국 사이에서 상층통일전선을 이루어냈지만 그것은 아직 전선의 공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층통일전선이 공고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세 가지다.

첫째 원인은, 상층통일전선이 평양회담이라는 한 차례의 정치협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원인은, 김대중정권의 권력기반이 취약할 뿐 아니라 정권 내부에도 화해·협력정책을 반대하거나 그 정책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세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 내부에 화해·협력정책을 반대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으로 민족민주운동의 조국통일사업을 금압하는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셋째 원인은, 지금 부시정권이 조·미 관계에서 조성한 경색국면 때문에 상층통일전선의 추진일정에 일단 제동이 걸렸으며 반통일세력은 그러한 상황을 틈타고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무엇을 위해 힘과 열정을 쏟아야 할까? 오늘 민족민주운동 앞에는 이미 형성된 상층통일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이 주어졌다. 민족민주운동이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려 할 때,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체제다. 그러므로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은 곧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일치된다.

그렇다면 아직 공고하지 못한 상층통일전선을 공고하게 하는 방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올해 민족민주운동이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반통일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세력의 준동을 제압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게 되면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이루어낸 상층통일전선이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과업은 6.15 공동선언을 전민족적 범위에서 실현해 가는 투쟁에 의하여 그 성패가 좌우된다. 올해 민족민주운동은 6.15 공동선언의 역사적 의의를 각계층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 넣고 그 선언을 실현하는 길에 각계층 대중 자신이 나서게 하는 조직·정치사업에 달라붙어야 한다.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사업은 민족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며 민족대단결운동의 중심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은 6.15 공동선언에 따라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조하여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고 그 세력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타격하는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 투쟁의 승리는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는 물론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세력에게도 공동의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운동이 화해·협력을 추구



하는 세력과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서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하여 공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이 정권 재창출의 야망에 사로잡혀 화해 ·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 추구세력과 공조하는 것은 결국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김대중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화해 · 협력정책을 추진하건 아니면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건 상관없이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화해 · 협력정책을 추진하는 한, 민족민주운동은 공동의 적을 타도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과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김대중정권이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화해 · 협력정책을 파기한다면 민족민주운동은 그 정권과 공조할 수 없고 또 공조해서도 안 된다. 그 때에는 상호대립성만이 남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정권의 반민중적 성격을 거론하면서 민중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족민주운동이 어찌 그러한 정권의 화해 · 협력정책과 공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물론 민중의 계급적 이익을 쟁취하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정권은 도저히 공조할 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다. 그렇지만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 민족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제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민족민주운동은 김대중정권의 화해 · 협력정책과 공조할 수 있고 또 공조해야 한다. 대립적 측면만을 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측면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통일전선전략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원래 민족통일전선전략이란 차이와 대립성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전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전략이다.

그러므로 지금 민족민주운동은 공동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며 행동해야 한다. 상층통일전선이 아직 공고하지 못하고, 하층 통일전선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현재의 조건에서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세력과 공조하는 것은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상층통일전선을 공고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과업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도를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도가 떠오르게 된다.

첫째 방도는 민족민주운동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직 · 정치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 2 차 최고당국자 회담의 개최는 6.15공동선언의 실현과정을 더욱 심화 · 발전시키고 지난해에 형성된 상층통일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제 2 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게 되면 그것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합 · 연방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합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국가연합 방안은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통일방안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사이좋은 이웃나라로 살아가자는 국가공존방안이므로 그 방안 자체는 연방제 통일방안과 배치된다. 그렇지만 국가연합 방안은 남북 사이의 화해 · 협력을 실현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므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실현하는 과정 안에 얼마든지 포괄될 수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여 열리는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은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방안을 포괄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제 2 차 최고당국자 회담(상층통일전선)에서 합의 · 확정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이 즉각적으로 지지 · 찬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연방제 통일이 강제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통일이므로,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하고 그것을 지지 · 찬동해야 합의에 의한 통일이 실현될 수 있다. 지금까지 남(한국)의 집권세력들은 한결같이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화통일 방안≫이라고 왜곡하면서 그 자체에 대한 논의와 의사표시마저 금압해왔으므로 남(한국) 대중의 의식구조에서 그러한 부정적 분위기가 가셔지는 데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민족민주운동은 남(한국)의 각계층 대중 속에 들어가서 연방제 통일이 ≪적화통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연방제 통일방안은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방안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통일방안이라는 것, 그리고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이룩하는 유일무이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교양 · 선전하는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전국연합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환영하는 특별결의문을 발표하고 그를 위하여 대중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대중대통령의 화해 · 협력정책은 비록 부시정권의 경색국면에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 개최를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키려 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고 제2차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당면과업에 대하여 민족민주운동과 김대중정권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민족민주운동이 화해 · 협력을 추구하는 김대중정권과 공조하여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성사시키면, 그것은 연방제 통일과 화해 · 협력을 반대하는 공동의 적인 반통일세력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서울 땅을 밟는 역사적인 그 날, 그를 환영하는 민족의 환호성은 세상을 뒤덮을 것이며, 그가 김대중대통령과 만나 최고당국자 회담을 개최하고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합의를 민족 앞에 내놓는 그 순간 삼천리 강산은 민족의 통일열기 속에 잠길 것이다.

둘째 방도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는 것이다. 지금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싸고 완전 철폐세력, 부분 개정세력, 유지 · 보존세력 사이에서 날카로운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완전 철폐세력인 민족민주운동의 당면과업은 부분 개정세력과 공조하여 유지 · 보존세력을 고립 · 타격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고 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지난해 평양회담에서 이루어진 상층통일전선은 완전 철폐세력과 부분 개정세력이 정치적 화해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국가보안법 체제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하층 통일전선은 남(한국)에서 완전 철폐세력이 부분 개정세력과 공조하여 국가보안법을 유지 · 보존하려는 세력을 고립 · 타격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한국)의 232 개 단체가 망라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의 적극적인 투쟁이 기대된다.

셋째 방도는 올해 6 월 15 일부터 8 월 15 일까지 두 달 동안에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이한 사회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을 연대의 틀로 묶어내고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 ·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것이다. 지금 남측과 해외동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기구의 결성은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열쇠다. 3 월 15 일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가 결성된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었다. 얼마 전 전국연합이 북과 해외의 동포들에게 공식 제안했던 민족대토론회를 개최하는 사업은 하층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10일과 11일 남측의 노동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그리고 북측의 노동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사회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대표자들이 금강산에서 만나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올해 하층 통일전선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쾌거였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한(조선)반도 전체의 농민계급을 망라하고 있는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의 대표자들이 남북농민 통일대토론회와 통일단오명절놀이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합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층 통일전선이 노동계급과 농민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민중운동세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1948 년 4 월에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정당 · 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국토분할과 민족분열을 항구화 · 고착화하려는 아메리카 제국주의와 그 추종세력의 책동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에서 하층 통일전선의 승리

를 이룩한 위대한 역사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 때 이승만 정권은 소 · 미 양군 철수와 민족대단결을 반대하는 정권이었기 때문에 상층통일전선이 형성될 수 없었다.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은 화해와 협력, 그리고 자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상층통일전선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올해 2001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과 제2차 남북 최고당국자 회담의 성사를 통하여 상층통일전선의 승리를 더 한 층 공고하게 만들고, 1948년에 이룩했던 하층 통일전선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 발전시킴으로써 반통일세력을 파멸로 몰아넣고 재생의 여지가 없게 소멸하여 상층통일전선과 하층 통일전선의 동시적 승리,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할 시기다. 이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할 가장 힘있는 주체는 민족민주운동밖에 없다.

다음은 최성원씨의 연구논문 ≪두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중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5. 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반제자주역량과 민중적 민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전국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반제자주역량의 중심권은 북측에 존재하고 있는데 비하여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돋보인다. 북측에도 민중적 민주역량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북측에는 민중적 민주역량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존재하고 있다. 민중적 민주역량과 사회주의 혁명역량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3대 강령 가운데 자주강령은 전국적 판도에서 수행해야 할 강령인데 비하여 민주강령은 남측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령이므로 그것은 남측 지역에 국한되어 수행해야 할 강령이다. 따라서 민주강령을 수행하는 민중적 민주역량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역량이다. 그러므로 민중적 민주역량을 더욱 강화 · 장성하는 일차적 책임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에게 있다.

지금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민중적 민주역량을 강화 · 장성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수행하고 있는 민주강령의 총적 목표는 일반 민주주의의 완성이나 ≪인권선진국≫의 건설이 아니며, 오직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다.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그리고 통일전선 구축사업을 통해서 자주강령과 민주강령을 수행하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전략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족민주전선에게 결정적인 의의를 부여하게 되는 과업은, 미군을 철거하는 과업보다는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업과 남측에서 지역통일전선을 구축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위에서 이미 해설한 대로,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함께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철거하게 될 것이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몫은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이 된다. 민족민주전선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측에서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에 더 많은 힘을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전선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앞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남북(북남) 정부당국 사이의 합의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북측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지난해에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회담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았다. 북측은 6.15공동선언 뒤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장관급(상급)회담에서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되어도 서울회담에서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북측이 마치 국가보안법 철폐원칙에서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오해다.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전에는 남북(북남) 사이에서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원칙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측은 6.15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앞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책임적 주체는 북측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아니라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민중적 민주역량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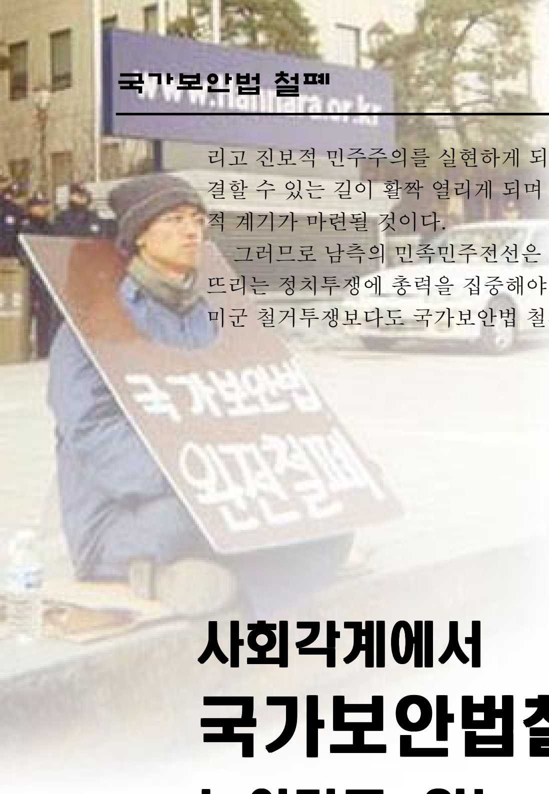
북측이 조 · 미 정치협상을 통해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라 미국이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체제가 철군 시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되기 시작하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은 자기들이 의존해왔던 ≪강한 보호자≫가 떠나버린다고 생각하고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국가보안법에 더욱 악착같이 매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있는 세력은 제국주의세력이 아니라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이다. 그러므로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남측의 반통일, 반민중세력을 힘으로 제압하기 전에는 국가보안법 체제가 남북(북남)관계의 변화추세에 따라 어느 정도 완화 · 개편은 될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6.15공동선언 이후에 그 선언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구호를 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강력한 정치투쟁을 벌이는 문제는 이제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고유한 몫으로 남겨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만고악법 국가보안법은 양날이 선 저주스런 칼과 같다. 반통일의 칼날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민주의 칼날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을 탄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김대중 정권은 6.15공동선언 이후의 정세발전에 맞게 국가보안법의 내용 가운데서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과 ≪불고지죄≫를 없애고 ≪고무 · 찬양죄≫를 적당히 손질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으로 서울회담이 성사되면 집권세력 안에서 개정파의 목소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파의 주장대로 개정되면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의 칼날은 상당히 무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개정파의 요구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반민주의 칼날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문제는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교류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아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북측은 북측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지적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바로 그 부분이 제거된 개정판 국가보안법이 나온다면 북측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판 국가보안법에 남아있는 반민주의 칼날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과제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투쟁력으로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



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면, 남측 민족민주전선과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며 따라서 민족자주위업을 명실공히 단결된 민족주체역량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측의 민족민주전선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각계에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시간엔 사회 각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계층 민중 속에서 국가보안법을 즉시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낸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를 보면 남북간의 수많은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위세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의 경우 정상회담 이후 구속자수가 회담이전 구속자수보다 72%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치권이 국가보안법개폐작업을 계속 미루고 있는데다가 사법당국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낸 20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는 민의를 반영한 것으로써 사회각계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도 조국통일도 결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화일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반통일악법입니다. 이 악법은 이북을 통일대화의 일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의 동족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족사이의 적대와 대결을 법문화한 국가보안법이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전제로 하는 조국통일의 이념에 배치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언론들까지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주체인 북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자주적 통일을 거부하는 분단고착법이라고 낙인한 것은 우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를 이롭게 한 자, 그와 통신회합을 한 자는 물론, 이적표현물을 제작, 입수, 복사, 소지, 운반, 판매, 취득한 사람들을 처형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은 북의 동족과 만나는 것도 범죄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으며 더우이 동반자가 되어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이로운 것은 이롭다고 말하는 것 조차 못하게 하고 습니다.

이렇듯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되는 희대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간의 여러 갈래의 대화와 협상을 원만히 실현할 수 없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습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자면 국가보안법을 개폐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선 사회적 여론에 못이겨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해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로 엇갈린 주장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그릇된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는 국내만의 관심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기자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서울선언은 북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가 철폐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남북공동선언이행에 대한 당국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검증하는 또 하나의 척도로 됩니다. 그런만큼 정치권은 우리 국민들과 세인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가보안법을 개폐가 아니라 즉각 완전 철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주체 90, 6월 9일

통일운동단체들이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이북의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제안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통일운동단체들은 일치하게 북의 정당, 단체합동회의의 제안에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동시에 북측의 제안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는데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나아가는 길에 외세와 반통일세력들이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북측의 의로운 결정에 호응해 남쪽 민중속에서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우리 민족의 통일대행진은 미국의 대북강경책동과 반통일세력들의 준동에 의해 조성된 난관을 물리치고 공동선언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북측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 나설 것을 남측의 모든 통일애국단체들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의 제안은 겨레의 통일염원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동선언 1주년을 민족적 단결로 꽃피우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면서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도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연대연합의 전성기, 전민족대단결의 전성기로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을 성대히 보낼 것이라면서 이 기간을 범청학련 전환의 **으로 선포하고 통일선봉대의 힘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총련은 6.15공동선언이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고 호소하면서 백만청춘은 2001년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기어이 열어 나가기 위한 길, 우리 민족의 역사의 ****전성기로 빛내가는데 청춘을 다 바쳐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주체 90, 6월 10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40여개 학생,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는 3일 오후 서울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범국민대회를 열고 6.15공동선언의 조속한 실천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만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통일연대는 남과 북간의 평화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실천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남북통일분위기조성을 저해하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회는 앞서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였던 대학생 7천여명이 지하철로 이동해 집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통일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대학로에서 종묘공원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범국민대회는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주체 90, 6월 10일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등 40여개 학생, 시민단체로 구성된 통일연대는 3일 오후 서울에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범국민대회를 열고 6.15공동선언의 조속한 실천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만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통일연대는 남과 북간의 평화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의 실천에 정부가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남북통일분위기조성을 저해하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계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회는 앞서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출범식에 참가하였던 대학생 7천여명이 지하철로 이동해 집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통일연대는 집회를 마친 뒤 대학로에서 종묘공원까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범국민대회는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속에 진행되었습니다.

한민전 대변인은 6일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악랄한 대북대결책동을 규탄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담화에서 최근 이회창이 부시행정부패거리들이 떠드는 상호주의니 투명성이니 하는 곡조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이북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한 사실들을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극우반동보수분자, 극악한 반통일분자로서의 이회창의 흉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인 작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통일은 안중에 없이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아 나서는 이회창의 이러한 망동은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전면 도전하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행위이고 민족의 이익은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에 아부굴종하는 추악한 친미사대매국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회창과 같은 추악한 민족반역자, 반북반통일광신자들이 있는 한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로 돌아가 긴장이 격화되며 정세가 첨예한 전쟁접경에로까지 치닫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면서 이회창과 같은 정신병자, 매국역적, 통일의 걸림돌은 제때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 이회창을 정치무대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야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최근 이회창이 6.15남북공동선언정신에 위배되는 언동을 거리낌없이 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부시행정부가 떠들고 있는 상호주의와 투명성보장 등을 되받아 외우며 북을 심히 헐뜯고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 동족에 대해 주적이니 뭐니하는 입에 담지 못할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회창의 이 같은 망언은 남북대결을 조성하고 정세를 긴장시켜 좋게 발전하는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통일을 방해하려는 용납못할 책동이다. 이회창이야말로 반통일분자, 민족반역아이다. 이회창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통일이 쉽게 되지 않는 것이다. 민족의 이익에는 안중에도 없이 부시의 대북강경수에 아부하고 추종하는 친미사대분자 이회창은 정치무대에서 아예 제거해버려야 한다.

시민단체의 한 인사는 이회창이 남북간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 무모한 퍼주기니 국민혈세의 탕진이니 하며 대북협력사업중단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의 무분별한 망언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방해하려는 반민족적 책동이다.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필코 막아보려는 부시정권에 추종하는 이회창과 같은 극우세력들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는 소강상태에 처해있다. 이런자들을 그냥 방치해둔다면 남북대결과 긴장상태는 더욱 격화되고 전쟁접경에로까지 갈수 있다고 본다. 외세에 추종하며 민족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는 이회창과 같은 자들은 마땅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일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렇게 발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국민의 지향에 도전하고 있는 이회창 때문에 한나라당이 대다수국민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있다. 이회창은 민중의 이익에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대권만을 노리며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감투를 쓴다면 전쟁이 터지던가 무슨 변이 날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이회창은 더 이상 국민과 함께 살수 없는 인물이다.

주체 90, 6월 11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자문회의가 마련한 남북대화와 협력 실천을 다짐하는 서울시민 걷기 대회가 10일 오전 남산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걷기대회에 참가한 시민 3,000여명은 화해와 협력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통일기반구축을 위해서 범국민적인 합의를 마련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6월 민중항쟁 14주년을 기념하는 시민달리기 대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있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와 6월 민중항쟁행사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는 7,0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여의도 윤정로를 따라 5킬로미터 구간을 달리며 14년전에 있었던 6.10민중항쟁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주체 90, 6월 12일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인도인민전선 위원장인 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 위원장이 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담화에서 지난해 6월에 있은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통일에 대한 철의 의지와 노고,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됐다고 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언에 밝히신대로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면 외세의존, 외세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문제해결과 평화보장에 저촉되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지하며 한반도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주체 90, 6월 13일

한민전 부위원장은 12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돌을 즈음해 담화를 내고 지난해 6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분단사상 처음으로 뜻깊은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6.15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킨 것은 조국통일운동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특기할 사변이며 남북공동선언은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화해와 단합의 역사로 전환시켜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며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한 엄숙한 민족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조국통일운동사에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 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며 삼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화는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나설 때 우리 민족은 21세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우리 한민전은 각계 애국민중과 함께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감으로써 새 세기의 첫 해인 올해를 민족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1돌을 맞으며 경향각지에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평양에 갔다온 한 기자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당시를 감회깊이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흥분을 금할 수 없다. 온 겨레를 통일열기로 들끓게 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은 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 보았지만 **김정일**장군님의 불같이 뜨거운 동포애와 포옹력, 결단성 있는 용단,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인간성은 만사람을 반하게 했고 머리숙이게 했다.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고 누적돼온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단 한번의 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협력, 단결과 통일을 향한 길로 역전시킨 새로운 국면을 마련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충정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나라를 통일하시고 민족을 융성번영에로 이끄실 민족의 위대한 영수이시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모씨는 남북정상회담 1돌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은 어느때보다 더욱 간절해진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으로 중계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러 우리들은 만세환호를 올렸고 격한 마음을 금치 못해 눈물을 흘렸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장군님이 계시기에 통일의 이정표가 마련됐고 남북간에는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은 미국놈들 때문에 곡절을 겪고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되리라고 확신한다.

주체 90, 6월 14일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1돌에 즈음하여 13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 이북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광기대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러러 따르는 숭배열기와 통일열기로 가득 찬 이남의 민심동향에 대하여 통보했습니다.

그는 이남민중은 이남민중은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은 역사적사변으로서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불면불휴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남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운명의 수호자로 높이 우러러 따르는 위인숭배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노선과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21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이남민중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영원히 청춘으로 지내시옵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과 강렬한 통일열의에 넘쳐 있는 이남민중들의 모습을 수록한 녹화물을 보았습니다.

9기 한총련 최승환의장이 12일 호소문을 발표해 6.15공동선언 기치 높이 자주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호소문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남과 북, 해외 7천만겨레는 1년 전, 남북의 두 정상이 온 겨레와 인류 앞에 민족의 자주통일선언을 발표하며 얼싸안던 그날의 격동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하면서 온 민족의 힘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역사와 민중앞에 약속한 우리 백만의 결의라고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격동하는 정세는 청년학생들의 힘있는 투쟁을 더 높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백만청춘이 하나같이 떨쳐일어나 민족통일운동촉진기간에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역사창조의 기적을 이룩해 나가자고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6월 11일부터 17일까지을 6.15남북공동선언발표 기념주간으로 정하고 범국민적인 성명과 경축행사를 조직진행할 것을 호소하고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와 실천의지를 재확인하며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로 되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호소문은 또한 미국반대, 국가보안법철폐의 구호를 전면에 내걸고 6.23양민학살국제전범재판을 목적의식적으로 준비하며 반미투쟁을 강화하자고 지적했습니다. 호소문은 노동자, 농민대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이 자주통일투쟁으로 상승발전할 수 있도록 한총련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면서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해 통일의 의지를 함께 세워나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12일 저녁 고려대 구내에 주체사상탑모형이 세워져 학생들과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고려대총학생회가 교내 학생회관앞에 설치한 주체사상탑모형은 높이 3미터 폭 **센치미터크기로 목재골조에 흰색 전지를 두른 것으로써 이는 평양의 대동강변에 건립된 170미터 높이의 주체사상탑을 56배 축소한 모형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맞으며 주체사상탑모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조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청년학생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을 것인 동시에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보다 뜻깊게 기념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와 관련해 이적성 여부의 검토니 뭐니하며 소동을 피우고 있어 각계의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평야방송에 따르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이종활회장이 12일 공항에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회견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에 열린 남북최고위급회담은 자기 힘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족의 분열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을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바쳐 가고 계시는데 언급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은 주체적인 애국관에 기초하여 민족운명개척의 진로를 밝혀 주시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태양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는 자주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철학, 통일철학이라면서 민족의 장엄한 자주통일흐름에 뜨거운 애국애족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 통일조국건설에 특색 있게 기여할 결의를 다졌습니다.

주체 90, 6월 1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15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삼가 감사편지를 드렸습니다.

한민전은 편지에서 지난해 6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의 이정표를 마련해 주심으로 해 우리 겨레는 수난에 찬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21세기를 통일조국 강성부흥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빛낼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됐으며 온 겨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해 나가는 밝은 앞길을 열어가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지에서 한민전중앙위원회는 남녘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장군님만 계시면 조국통일도 민족부흥도 문제없다는 확신을 깊이 새기고 한민전과 통일운동대오를 장군님의사상과 영도에 무한히 충실한 불패의 대오로 튼튼히 다지며 장군님에 대한 각계민중의 숭배열풍이 이땅을 뒤덮게 하겠다고 지적하고 올해를 민족자주통일의 획기적 국면을 여는 뜻깊은 해로 빛나게 장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는 민족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장군님께서 영원히 젊음에 넘쳐 계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해 15일 조총련 상임위원회에서 축전을 드렸습니다.

축전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후 처음으로 남북 수뇌분들의 역사적인 상봉을 마련하시어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고 분열이후 55년동안 이루지 못한 거창한 일을 몸소 맡아 해오신 것은 민족통일운동사에 가장 빛나는 업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축전은 역사적인 평양상봉이후 지난 한해동안에 조국통일운동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력으로 전진하고 장군님의 덕망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면서 해내외 동포들속에서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단합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민족 자주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축전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해 민족운명의 수호자이시며 조국통일 역사의 창조자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축전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권위를 가지고 조국을 통일하며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통일강성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은 조총련이 확고히 지닌 절대적인 신념이고 철의 의지라면서 7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원히 젊음에 넘쳐 부디 옥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기념해 이북의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와 이남 사학법인연합회, 사진학회의 주최로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가 평양에서 개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인민대학당에 꾸려진 전시회장에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연연히 잇닿은 우리 나라 명산들의 아름다운 일만경치와 명소들, 문화유적등을 소개하는 100점의 사진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남북공동사진전 개막식이 14일에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장 정면에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악수를 나누시는 사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이북 최고인민회의 김영남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하철부장, 강능수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내 기자, 편집원들, 문화예술인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이남 사학법인연합회 홍희표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 김성국위원장이 개막연설에 이어 홍희표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 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에 즈음해 각계에서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의 한 인사는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지난 1년 동안에 남북간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과 비전향장기수 송환, 이산가족방문단교환, 협력과 교류 등 공동선언이행에서 큰 성과가 이룩됐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했으나 당국은 통일을 위해서는 미일과의 굳건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는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통일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과의 공조에 나서야 한다. 또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거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 세력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또 다른 통일운동단체 인사 김모씨는 6.15남북공동선언은 바로 자주통일선언인데도 극우 반통일 세력들이 외세에 추종하며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반대하면서 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도전하는 반역자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민족의 이름으로 반통일분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연합의 한 인사는 6.15공동선언발표 이후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시정권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통일을 가로막기 위해 대북강경책동에 매달리고 있다.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켜 또다시 북침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통째로 깔고 앉으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이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그냥 두고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국민 반미항전을 벌여 이땅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그들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한총련 소속 모대학교 총학생회장은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통일의 이정표라면서 청년학생들은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들고 통일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맞으며 부산지역의 대학들에 인공기가 등장해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동아대 총학생회는 11일 오전, 자연과학대학 건물앞에 인공기와 함께 단일기가 그려진 대형걸개그림을 내걸었습니다. 총학생회는 6.15공동선언 1돌 기념주간에 각 단과대학별로 인공기가 그려진 걸개그림을 계속 내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부산경산전문대학은 13일 인공기와 단일기가 그려진 걸개 그림을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통일열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해양대학교도 옛본관건물 등에 단일기와 함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영상이 모셔진 대형걸개그림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지역 대학들은 이번 6.15공동선언기념기간을 맞으며 15일 오후 각 대학별로 통일운동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시민선전활동과 교내 집회 등을 잇따라 벌였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돌에 즈음해 재중조선인들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중남지구협회 조용환회장을 비롯해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언급하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따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박수속에 채택되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 주체 89 (2000) 6.13-615 를 보았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정부, 당** 각계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6.15남북공동선언은 세기가 교체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내외에 선포한 역사적 문건이라면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 발표는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와 끊임없는 노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의 예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해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 해서 우리 민족앞에 조국통일의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 민족자주통일에로의 일대 전환의 계기가 **다면서 연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오신 불멸의 업적으로 해 장군님에 대한 해내외 민중의 다함없는 신뢰와 존경, 칭송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사는 오늘의 조성된 정세는 우리 민족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더욱 완강하게,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그러자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는 것과 함께 민족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며 안팎의 도전으로부터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 고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90, 6월 16일

최근 전라북도 전주시 일대 주민들속에서 모 단체가 발간한 팜플렛 6월의 환호 가 널리 윤독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을 계기로 발간된 이 팜플렛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속에 평범하게만 느껴지던 6월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과 환희의 달로 새겨졌으니 그것은 언제 어느때부터 였던가. 감회도 새로운 2000년 6월 분단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성공적으로 주도해 가신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겨레와 인류는 역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걸출한 영도자, 위대한 영도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았다. 그 6월과 더불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가 온 이남땅과 온 세계에서 더욱 높이 울려 나왔다.

정녕 6월은 겨레와 인류의 마음 속에 절세위인을 더 잘 알게 한 6월, 위인칭송의 6월로 영원히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팜플렛에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나날에 새겨주신 숭고한 화폭들과 그분을 끝없이 칭송한 이남민중의 경모의 정들로 꽃펴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감동 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 가 15일 금강산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이북의 각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또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등 20명의 해외동포대표들과 각계 인사 250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남측대표들이 토론회장에 도착하자 북과 해외대표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자 아리랑의 노래 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대형통일 깃발이 서서히 게양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 8.15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장인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배회장, 남측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이돈명상임본부장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손장래상임의장,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회장, 이북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위원장, 남측의 민주노동당천영세사무총장, 북측 민주여성동맹 최창숙부위원장,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정운업회장, 남측의 전국연합 이천재공동의장, 범민련 미국지역본부 류태영대표, 남측 여성단체연합 지은희상임대표, 북측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봉원익비서, 남측 기독교교회협의회 임흥기국장이 연설했습니다.

연설은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자주의 기치이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새 세기 조국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이정표이라는데 언급하고 세인이 공인하는 통일대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통일조국을 반드시 건립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했던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은 15일 금강산에서는 모란봉 교예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금강산여관에서는 6.15공동선언발표 1돌 기념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에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남과 북의 각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해외동포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연회는 동포애의 정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에 즈음해 남북장관급 회담대표단 단장들 사이에 15일 판문점을 통해 축하편지가 도착 됐습니다. 대표단 단장들은 편지에서 남북공동선언 발표 1주년을 맞이해 열렬한 축하와 동포애의 정을 전하고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풀어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광주전남실천연대 결성식이 7일 광주일보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범민련 광주전남연합의장을 비롯한 각계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결성식에서는 전남대학교 이광*명예교수가 상임대표로 선출되었고 공동대표들과 집행위원장, 위원들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전남지역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해 광주의 학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망라된 광주전남실천연대는 6.15공동선언의 의의에 부합되게 광주전남지역에서의 공동선언 실천사업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성식에 이어 광주전남실천연대는 광주일보사 앞마당에서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을 고발하는 점령군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전시회에서 김현*전시기획단장은 이번 전시회는 공동선언의 최대걸림돌인 미군의 죄행을 고발하는 전시회라면서 아무리 참혹하게 그린다해도 진실보다 참혹할 수 없고,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런 역사는 꼭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실천연대가 결성됐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돌 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지난 14일 일본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 허만술의장을 비롯해 조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님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에서는 허만술의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와 대용단에 의해 반세기의 민족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수뇌분들의 상봉이 마련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이었다며 영도자님이시야 말로 절세의 위인,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에 이룩된 경이적인 사태발전과 커다란 성과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불면불휴의 심혈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그분께서 쌓으신 조국통일영도업적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체 조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남과 북, 해외동포들과 굳게 연대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적극 합세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통일부강조국의 실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각계 대표들이 결의토론을 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낭독되었습니다. 대회는 조선은 하나다 의 노래합창으로 끝났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잡지 백두-한라 제 6호를 발행했습니다.

잡지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전민족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라는데 대하여 하신 말씀중에서 일부를 게재했습니다. 잡지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연합회에서 드리는 축하편지를 싣고 남북공동선언 , 민족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펼치시여 라는 제목의 글들을 실었습니다.

잡지는 7천만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된 재중조선인총연합회 부의장 차상보의 담화도 실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에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15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천재적 예지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으로 민족분열 55년사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주셨으며 비전향장기수들을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데려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비전향장기수들이 이남땅에서 신념과 지조를 지켜 꿋꿋이 싸울 수 있도록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분은 **김정일**영도자님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지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하해같은 사랑과 은정속에 빼앗긴 청춘과 인생을 되찾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있다며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돌려주시는 영도자님의 사랑과 배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편지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디 억년 청춘으로 젊어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조국통일의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가고 있는 속에 이남과 해외동포들,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건설장에 고급석제들을 기증하고 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남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건설장에 지금까지 보내온 고급석제들은 67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남에서 여러단체들과 인사들이 조국통일열망을 안고 성의껏 마련해 기증한 희귀한 석제들은 100여개나 됩니다. 또 조총련의 여러 단체들과 재일본동포들은 수차에 걸쳐 200여 개의 고급석제들을 기증했으며 재중동포들은 100여개의 고급석제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여러 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도 많은 희귀한 석재들을 기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콩고와 기니의 대통령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국제연락위원회위원장과 서기장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 국제기

주체 90, 6 월 17 일

6.15 공동선언발표 1 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6.15 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 가 15 일 금강산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조선로동당을 비롯한 이북의 각 정당, 단체대표 200 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남측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단체대표 200 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또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등 20 명의 해외동포 대표들과 각계 인사 250 여명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남측대표들이 토론회장에 도착하자 북과 해외대표들이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했습니다.

토론회의 시작을 알리자 아리랑의 노래 선율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대형통일 깃발이 서서히 게양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 8.15 민족통일촉진운동을 위한 북측준비위원장인 민족화해협의회 김영배회장, 남측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2001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이돈명상임본부장의 축하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어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손장래상임의장, 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회장, 이북 조선불교도연맹 박태화위원장, 남측의 민주노동당천영세사무총장, 북측 민주여성동맹 최창숙부위원장, 북측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정운업회장, 남측의 전국연합 이천재공동의장, 범

민련 미국지역본부 류태영대표, 남측 여성단체연합 지은희상임대표, 북측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봉원익비서, 남측 기독교교회협의회 임흥기국장이 연설했습니다.

연설은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존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자주의 기치이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새 세기 조국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희망의 이정표이라는데 언급하고 세인이 공인하는 통일대강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통일조국을 반드시 건립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6.15 공동선언발표 1 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과 일본당국의 역사왜곡책동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한편 6.15 공동선언발표 1 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했던 남과 북, 해외 대표들은 15 일 금강산에서는 모란봉 교예단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금강산여관에서는 6.15 공동선언발표 1 돌 기념 연회가 있었습니다. 연회에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한 남과 북의 각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 해외동포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연회는 동포애의 정이 넘쳐흐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조선대총학생회와 고려대 인민학부학생회가 6.15 공동선언 1 주년을 기념해 학교건물에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내걸었습니다.

조선대총학생회는 6.15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성실히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인공기를 계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 돌에 즈음해 뷸레찐 통일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뷸레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입상화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사진을 모셨습니다. 뷸레찐은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단계 , 통일은 애국이고 민족융성의 길이다 ,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담당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통일위업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뷸레찐은 공동선언발표 이후에 진행된 각종 행사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편집하고 조선민족의 문화와 역사, 풍습을 소개하는 글들도 실었습니다.

뷸레찐은 온민족이 6.15남북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 1 돌에 즈음하여 13 일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는 평양시내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외국특파기자들, 이북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출판관계일군들이 참가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광기대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우러러 따르는 숭배열기와 통일열기로 가득 찬 이남의 민심동향에 대하여 통보했습니다.

그는 이남민중은 이남민중은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 놓은 역사적사변으로서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불면불휴의 노고의 결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남에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대단결의 중심으로, 민족운명의 수호자로 높이 우러러 따르는 위인숭배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남민중의 통일운동이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과 노선과 따라 힘있게 전개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신 21 세기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이남민중의 흠모의 마음을 담아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군님께서 영원히 청춘으로 지내시옵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광기대표는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숭배심과 강렬한 통일열의에 넘쳐 있는 이남민중들의 모습을 수록한 녹화물을 보았습니다.

주체 90, 6 월 18 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 돌에 즈음해 러시아고통련의 주최로 14 일 모스크바에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러시아고통련 리동철위원장, *** 부위원장, 모스크바고통련 안창기서기장을 비롯한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러시아협회 위원장 등 협회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입상화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입상화에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열의와 통일의지에 의해 마련된데 언급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할 굳은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 주체 90 (2000), 6 월 13 일 -15 일 을 보았습니다.

주체 90, 6 월 21 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 공동선언발표 1 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재야단체 인사 이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그는 18일 자기 집으로 찾아온 동료들에게 이번 토론회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과 북, 해외 정당, 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수많이 참가해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말그대로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역사적인 대회합이었다. 이 같은 민족대단결의 장, 통일의 한마당이 마련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김정일**영수께서 지난해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6.15 공동선언을 채택하도록 현명하게 영도하신 결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일치하게 강조된 것처럼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간다면 머지않아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가장 올바른 조국통일방안을 제시하시고 전 민족을 통일운동에로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최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전해드립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 주년을 맞으며 파쇼적이며 반통일적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4 일 성명을 통해 수구세력들의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하며 여야 3당이 진정으로 통일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철폐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총련은 제 9 기 출범식에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와 국가보안법 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여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요구는 각계 민중들 속에서 뿐 아니라 여야 정치인들 속에서까지 제기되고 있고 언론들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안법철폐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이 법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암적존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보안법은 이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들이 보안법위반 혐의로 마구 탄압당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펴낸 200년 국가보안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6.15 공동선언발표 이후 이른바 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수가 발표이전 구속자수보다 72% 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정부당국과 정치권이 보안법을 철폐할 의지와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의향이 없는데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민이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 패거리들과 자민련, 민주당

내 ***반통일세력들이 파쇼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철폐는 물론 개정마저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아직도 보안법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용납 못 할 도전인 것입니다.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각계 민중은 당국의 이 같은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보안법 철폐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겁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재중조선총연합회와 그 산하 조직들,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와 그 산하조직들 등 해외교포조직들과 동포들이 각각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드렸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도록 하시어 온 겨레에게 자주통일 시대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계의 격찬을 자아내신 영도자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김정일**영도자님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또 **김정일**영도자님의 선군정치와 조국민중들의 영웅적 투쟁에 대해 지적하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조국민중들과 더욱 굳게 연대해 투쟁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디 건강하실 것을 삼가 축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15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는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양영동의장과 성원들, 총연합회 요령지구 산하 대표들, 심양에 사는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양영동 의장이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라는 제목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요령지구협회 황영두회장이 6.15남북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라는 제목으로 토론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 주체 89 (2000)년 6월 13일 -15일 을 감상했습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재독일동포협력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의 공동주최로 지난 12일과 13일에 독일의 위데스 하임에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조국통일사상과 숭고한 민족애, 넓은 도량에 의해 마련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연사들은 현 부시행정부의 우익보수세력들과 그에 추종한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이 남북화해와 통일운동의 행진을 멈춰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규탄하고 해외에서 통일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남과 북, 해외 각계각층의 참가하에 금강산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에 보내는 지지연대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성명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6.15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또 주한미군철수와 외세에 의존해 패권을 유지하려는 이남의 반통일세력이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조국통일은 연방제통일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체 90, 6월 22일

9기 한총련 최승환의장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규탄하며 17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북미관계를 악화시키는 한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의 일환으로 이남에 각종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을 벌이는 등으로 남북관계를 인위적으로 파탄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이 전세계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이남에 강요하고 있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세기의 긴장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민족의 앞길에 ***** 라면서 성명은 우리의 자주권, 민족의 존엄을 침해하는 자에게는 7천만 겨레의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주체 90, 6월 23일

지난 18일 금강산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발표 1돌 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했던 종교인 최모씨가 동료들 앞에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의 금강산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토론회는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찬양열기로 더욱 뜨겁게 진행됐다.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6.15공동선언이라는 획기적인 통일의 이정표가 세상에 나오고 남과 북, 해외의 많은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회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출 수 있겠는가.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선사해 주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나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 참가해서 이걸 더욱 절감했다. 우리 모두 **김정일**장군님의 통일방략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적극 떨쳐 나서자.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재미동포들이 여러가지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16일 재미동포전국연합회의 주최로 미군묘역에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에는 황성국회장을 비롯한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재미동포** 연합회 의장들과 재미교포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황성국회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됐습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재미동포중남부연합회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의 공동주최로 시카고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와 집회 참가자들은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 주체89 (2000), 6월 13일 -15일 을 보았습니다.

또한 15일 재미동포서부지역연합회 범민련 미국지역본부 등 단체들은 공동주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집회를 가졌고 워싱턴에서도 재미동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마다카스까르 독립대표당 전국서기, 파키스탄 공산당위원장, 페루 공산당서기장이 각각 연대성 전문을 드렸습니다.

전문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김정일**영도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문들은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김정일**영도자님과 이북민중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전문들은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인 포루투칼민주주의계획위원장이 1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경이적인 사변은 **김정일**각하의 비범한 예지와 대용단에 의해 마련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반세기 이상이나 조선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덮씌운 미국은 이번에도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대한 방해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세력들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을 반대하고 통일을 위한 조선민족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